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결과보고서

2020.10.29.

덕산 스피라스 리솜

목 차

I. 포럼 개요	4
1. 기본 개요	5
2. 프로그램	6
II. 세부 행사 내용	9
1. 개회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10
2. 축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11
3. 축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12
4. 축사.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13
5. 축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14
6. 축사. 최종건 외교부 차관	15
7. 환영사. 황선봉 예산군수	16
8. 기조연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17
9. 평화세션.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21
10. 번영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37
11. 번영2.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53
12. 공생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69
13. 공생2.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85
III. 보도 자료	99
1. 기사 리스트	100
2. 기사 내용	102
IV. 행사 사진	137
V. 기타	151
1. 과업 추진 체계 및 일정	152
2. 온라인 홍보	155
3. 오프라인 홍보	159
4. 행사장 제작물	161
5. 참가자 명단	170

1. 포럼 개요

1. 기본 개요

- 일 시 : 2020년 10월 29일 (목) 9시 30분~17시
- 장 소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
- 주 제 : 2020 환황해 새로운 도약
 - 평화 :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 번영1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 번영2 :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 공생1 :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 공생2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 주 최 : 충청남도
- 주 관 : (사)한반도평화포럼
- 후 원 : 외교부, 통일부
- 공식 이메일 : 2020pysf@gmail.com
- 유튜브 채널 : 2020제6회 환황해포럼
(<https://www.youtube.com/channel/UCAHslbhxM2kPeyXogSA9MIQ>)

2. 프로그램

2020년 10월 29일 (목)		
8:45-9:30	등록	1F 로비
9:30-10:30	개회식 & 기조연설	
	개회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축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환영사	황선봉 예산군수
	기조연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10:30-12:00	[특별 세션] 평화 :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좌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표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정치학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류샤오타오 중국과기일보 서울지국장 오카사카 켄타로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12:00-13:00	점심	1F 식당

13:30-15:00	번영1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스페이스A
	좌장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신혜중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 덴마크 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 노자와 사치코 도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번영2 :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그랜드홀
	좌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발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토론	김동일 보령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15:00-15:30	휴식		1F 로비
15:30-17:00	공생1 :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스페이스A
	좌장	최석원 前 공주대학교 총장	
	발제	투커구어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지진호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토론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상호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사회과학대학원 방문연구원	
	공생2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그랜드홀
	좌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병원장	
	발제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토론	왕슈안이 푸단대 의생물학연구원 연구위원 엄주현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	

II. 세부 행사 내용

개회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천백년의 역사 향기가 가득한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예산에서 개최되는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현장참석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환황해포럼은 동아시아의 대립과 갈등, 분열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 공생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충남은 한중일 삼국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며, 아시아평화공동체 조성의 큰 꿈에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연대의 경험과 기억 위에서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향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새로운 도약이 어찌면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은 삶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화와 국제협력 또한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운명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8개국 정상들이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칼럼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None of us is safe until all of us are safe).”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바로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경쟁과 각자도생이 아닌 협력과 연대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자각했습니다. 글로벌 연대만이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다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화, 번영, 공생의 가치를 추구해온 환황해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요한 역할을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포럼은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 해양생태복원, 환황해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 공중보건·위생 협력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도전과제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이해와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여기 환황해포럼에서 열립니다. 세계 평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환황해의 여정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입니다.

‘환황해 평화 번영 공생’을 주제로 열리는 「제6회 환황해 포럼」이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섯 번째 포럼을 마련해 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님,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님,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권의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으며, 문물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충남은 고대 해상무역왕국 백제의 역사를 이어받아 환황해권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사회·문화가 마비되며 환황해권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었던 각 나라는 교류의 단절로 고립되어 가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개발 이익을 고려해 장막 속에 갇혔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권역의 상호 관계와 이해를 살펴봄으로서 협력과 공조를 복원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국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강점과 보완점을 다져감으로써 동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과 공생’을 도모하는 ‘환황해포럼’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제6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초대해주신 주최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각국의 경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미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한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번영을 이루고 함께 회복 발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은 전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회복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중국의 차기 경제사회 발전계획, 즉 ‘14차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은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접어드는 첫 해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추세에 맞춰, 중국 국내의 큰 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핵심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로, 협력을 위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후, 3국은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역 내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한일간에는 비즈니스 인적 교류 편의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여 지역 내 경제 무역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전염병 이후 3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전염병 발생 현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망, 공급망도 원활하여 경제의 작은 순환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기초 위에 경제 무역 순환을 위한 ‘환황해 로드’를 빠르게 마련하여 3국간 제조 공급망, 제품 산업망, 소비 시장망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한층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동아시아 성장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다는 만물을 생장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강을 아우르는 넓은 포용력과 사해(四海)를 한 집처럼 만드는 조화로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곧 환황해 포럼의 개최 의미입니다. 제고항인 천진시 또한 중국의 ‘환발해 경제권’에 속하는 해안도시입니다. ‘환발해 경제권’은 좁은 의미로 중국의 요동반도, 산둥반도, 경진기(京津冀, 북경-천진-하북성) 지역 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산서, 요녕, 산둥 및 내몽고 중동부 지역 등을 의미합니다. ‘환발해 경제권’과 ‘환황해 경제권’은 서로 연결, 융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권역의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범(泛)황해 경제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황해가 보다 명실상부한 부의 바다,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사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오늘 충청남도, (사)한반도평화포럼의 노고에 힘입어 환황해포럼이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지식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지자체 간의 교류, 황해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 기업 간 협력 등 3국이 이익과 과제를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국가이자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 3국이 오늘날의 국내외 여러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여러 방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일한중 3국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양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인적 왕래 재개에 대해서는 이미 일한 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운용을 개시하였으며, 일중 간에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대신은 내년 여름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결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2018년 이후 평창, 도쿄, 베이징 3국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연속 개최되는 역사적 흐름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곳 아시아에서 스포츠 축제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비롯하여 금융, 에너지,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는 세계 각국 지자체와의 교류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세계 10개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18개국 지자체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가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역사를 가진 점에서 충청남도는 일본과의 인연도 깊고,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으며, 나라현, 시즈오카현과 우호협정을 맺고 현재도 각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중의 미래를 위한 대화가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이곳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축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입니다.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환황해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환황해포럼」은 황해의 교두보인 충남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으로서, 다양한 협력의제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황해권 국가들은 코로나의 위기를 비롯해 안보와 경제, 사회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초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듯이, 국가간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 될 저출산, 해양생태, 역사문화, 공중보건 등의 의제 또한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역내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해결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환황해권 공존공영의 논의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외 남북관계,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들께서 함께하신 만큼 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충남을 중심으로 한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 협력·지원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때 환황해의 공간은 대륙과 바다,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확고한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개최되는 국제포럼을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의 협력 아젠다를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벨트의 중심축이자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충남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해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포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축사 최종건 외교부 차관



제6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출범하여 다섯 돌을 맞이한 환황해포럼은 어느덧 황해 지역을 둘러싼 한중일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번영에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포럼의 의미 또한 작지 않습니다.

환황해 지역이 가진 위상과 중요성은 특별합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안보이슈가 상존하는 동시에,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지역의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은 곧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버팀목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의 유동적인 국제 정세가 국가간 교류와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다자 연대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필요할뿐더러 시의적절합니다. 역내 정세는 물론 보건 협력, 저출산, 고령화, 해양생태 복원, 물 자원 관리 등 환황해 지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환황해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역내 협력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한중일 3국간 평화·협력의 관행도 자연스럽게 공고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역내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중일 간 필수 인력 교류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하신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한중일 등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핵심 당사국들 간의 보건안보 협의체 구상입니다. 중요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그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6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이 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황선봉 예산군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군수 황선봉입니다.

오늘 양승조 지사님과 함께하는 ‘제6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과와 온천의 고장인 우리 예산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당호에 402M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와 천연 기념물인 황새공원 그리고 천년고찰인 수덕사가 있습니다. 또한 세예가이신 추사 김정 의 선생과 독립운동가이신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태어나신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우리 예산군에서 한.중.일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아 환황해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역 내 경제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문화, 관광, 산업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시대를 맞아 갈등과 경쟁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이러한 상호교류의 장이 되고 나아가 아시아의 인류 발전의 새로운 보탬이 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6회환황해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에서 워낙 전쟁과 갈등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그렇기에 평화를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황해권 일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 사이에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북방한계선이 있죠, NLL 여기서 특히 지난 20년 동안 최근에는 분쟁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남·북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역동성이 넘치는 황해바다가 긴장과 불안의 바다로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황해를 이야기할 때, 평화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 그리고 환황해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북한 또는 중국, 일본 여러 나라들의 주민들이 평화와 안녕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곧장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곧 경제로 이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과 환황해경제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말하는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다 같이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원해왔습니다. 지금은 특히 현실적으로 절박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기에 더욱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경제시대라는 말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기에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황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면, 단순히 평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국가들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상호 경제발전을 통해서 경제이익을 향유한 여러 국가들은 평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고 경제발전을 통한 신뢰구축이 평화를 더욱 증진시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와 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경제시대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이 불안한 대결상황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대결상황은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남북 군사 대결, 하나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 다시 말해서, 비핵화협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군사대결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시장경제로 나오지 않고, 또 한편으로 북한이 과거처럼 군사주의적인 노선을 고집한다면, 경제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불안하지만 유지하더라도 북한과 화해하더라도 경제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구조가 군사주의에서 경제주의로 바뀌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한과 북한, 두 개의 주권으로 좁혀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나름대로 투자하면 북한도 우리도 이익이 생기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익이 생기는 즉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북한의 비교우위경제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사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력, 일반자원 등 다양한 경제요소들이 사실 남북경제협력이나 북·

중, 러시아 경제협력을 활성화 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에 의한 착취가 아니라 쌍방이 함께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인데, 안보문제와 북한의 변화입니다.

안보문제에서는 남·북한 간 지난 2018년 9·19남북정상평양공동선언이 있을 때, 부속합의서로써 남북군사합의서가 있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평창올림픽 이후 한 번의 충돌이나 군사적 위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남·북한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주 최소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문제만 교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 아니고, 또한 6-7년 전 김정은 초기 정권이 아닙니다. 2018년 4월 북한은 그동안 군사주의 노선을(국가 자원분배 우선을 군대에 배분) 인민경제건설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정운영 기초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또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개혁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은 대외경제관계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선진 외부로부터의 자본가기술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그 대가로 응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유엔제제, 미국 제제로 북한 개방이 오히려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개방여부를 자세히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 하나만 진전되면 한반도에서는 평화경제시대가 곧장 그 시대로 넘어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한관계 긴장이 해소된다하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의 기초가 바뀌고 경제변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번성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게 김정은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말하는 이유는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북한이 변화해야 남북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중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북한의 변화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마지막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우리가 비핵화협상을 진전시켜서 북한핵문제의 진전을 본다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됐고, 그 이후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황해지역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여기에서의 남북관계의 끊임없는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인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여러 나라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간 관계도 안됐고, 황해 중심수역에서 NLL이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제적 역동성이 큰 황해바다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지난 75년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방경제는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방, 극동러시아, 몽골, 일본서부 해안 등 일대의 나라 지역들이 하나의 유기적 경제협력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 이것이 형성된다면 역내에 있는 국가 주민들은 번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방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도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것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역시 경제발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국가자원을 총력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역시 한반도와 연계성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서 볼 때, 이 지역과 연관된 지도자들 역시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방경제는 현재 교착국면에 있는 북핵문제만 진전된다면, 우리 눈앞에 당장 하나하나 실현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방경제가 실현된다면 한국경제는 물론 역내에 있는 나라들, 중국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공업·산업지대인 동부해안지대, 그리고 일본의 서부해안지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극동 한반도가 그야말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도 커다란 북방경제 틀과 연계해서 봐야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환황해 경제권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환황해 경제권이라는 것은 문재인정부 집권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구상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대륙을 통해 한반도에 육상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을 나아가는 하나의 경제축이 있고, 또 하나는 동해 쪽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이나 중국의 길림성 훈춘이나 일본의 서해안 쪽과 연결되는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이 황해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환황해 경제권이 한반도평화경제시대를 만드는 데 3가지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화적 역할입니다. 굉장히 큼니다. 황해에 있는 NLL선이 지금까지 역동적인 황해바다를 한국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함께 공동으로 극대화시킬 가능성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황해에서 경제적 협력이 가능해지면, 이 협력을 통해서 NLL긴장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평화의 경제선, 평화경제를 연결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NLL에서의 평화가 황해에서의 경제적인 번영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황해바다가 그동안 냉전의 바다였지만, 활기찬 경제협력의 바다로 전환되면서 황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활성화된 이 바다가 지금 한반도 역시 미·중 갈등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리·안보적으로 본다면, 이 황해가 대단히 안보적으로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수역입니다. 이 황해가 긴장이 해소되고, 경제적인 협력체의 모습을 띠면 이 안에서 미·중간 군사적 갈등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해에서의 경제협력은 결국 미·중간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황해바다야말로, 남한과 북한과 중국의 동부해안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의 동부해안 쪽이 경제발전단계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소도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이 세 개 영역이 하나의 유기적 협력체가 되었을 때, 공동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발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화적 역할입니다. 문화적으로 이 황해는 지중해보다 훨씬 더 좁고, 수역도 낮지만 굉장히 활성화 된 바다입니다. 황해바다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수간만을 통해 항상 물이 유통되면서, 엄청난 수산물도 있고 아름다운 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산도 있습니다. 도시도 인접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초국경 해상교류를 통한 황해문화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평화경제시대에서 황해가 환황해권의 여러 지방정부나 도시들이 노력해야하고 또한 나름대로 그 열망을 표출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가? 이 과제를 대한민국 정부입장에서 국내적과제와 국제사회 과제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사회에서 이러한 환황해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창출할 것인지, 한반도평화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필요합니다. 현재는 취약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국가전략으로서 남북평화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 삶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환황해 경제권이 그런 정도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역동성과 잠재성이 얼마나 있는지 꾸준히 연구하고 결과를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들은 환황해에 대한 경제적인 문화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국제적인 협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황해 경제권 내에 여러 도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남한 내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정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유엔제제로 협력이 어렵지만,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해안지역에 있는 거대도시들, 지방정부들과 합쳐서 이들이 함께 하나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국 수준이 아니라, 다국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구체화시켜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학술회의도 필요하지만 이 3국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에서 출발하여 칭다오 청진, 다롄, 신의주 그리고 남포로 해서 그리고 인천으로 해서 그리고 당진으로 해서 군산, 목포로 갈 수 있는 일련의 도시 연계형의 그러한 항로가 개최되고 그런 국제학술회의 이벤트와 같은 교류의 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셔티브를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 싱하이밍 대사가 있으니 중국도 할 거고, 중국이 북한에 이야기하면 북한도 남포 신의주와 협력하게 유도하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환황해권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교류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포럼하나가 아니라 협력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경제협력시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속에서 이제는 외교안보, 사회문화협력 특히 외교안보는 중앙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황해 일대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와 안보를 위한 쟁점에는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황해 평화경제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다른 중국의 도시와 북한의 도시, 지방정부들과 외교안보적인 협력, 하다못해 환황해의 평화경제를 열망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교안보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황해권에서 여러 지방정부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역내에서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세션_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인사말] 문정인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문정인입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위해서 충남대학교 고봉준 교수께서 발표할 것입니다. 고봉준 교수께서는 미국의 노틀담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서울대외교학과를 나오고 평화관련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충남에서 자랄 만 한 학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용현 교수께서는 동국대 정외과 교수로 있고, 정책위원회에도 있고,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북한연구 대표학자입니다. 우리 김용현 교수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류샤오타오 중국과학기술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지국장으로 와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우리 류샤오타오 국장께서는 아마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북한 평양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성균관대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보니 성균관대학교 사람이 많습니다. 오카사카 켄타로 교도통신 한국 서울지국장입니다. 오카사카국장께서는 미국통입니다. 그리고 핵문제, 군축문제를 많이 다룬 분인데, 언론인이기 전에 그 분야에 엄청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통역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속하신, 중국에 계신 위샤오화 교수님입니다. 손좀 들어주세요. 원래, 중국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제관계연구중심에 수석 연구원하셨고, 거기에 아태연구부장을 하고 그렸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직하고, 상해대학 한국문제연구소장이시고, 부군께서는 북경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일 교수입니다. 부부가 모두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박수로 다시 한 번 환영부탁드립니다.

니시노 준야 교수는 게이오대 법학부교수님입니다. 게이오대 동아시아 연구소 산하 한반도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 소장입니다. 사실상 최근 일본 게이오대 오코노미 교수의 제자입니다. 오코노미 교수님의 대를 이어,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 연구에 최고 전문가로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12시까지 꼭 마쳐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면, 고봉준 교수께서 기조발제를 15분 정도 해줄 것입니다. 그 15분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5분씩 토론해주고, 토론 순서를 바꾸어 위샤오화 선생께서 제일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니시노 교수께서, 그 다음 김용현교수, 류샤오타오 선생, 오카사카 켄타로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급적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플로어에서 서면으로 질문을 받아 저에게 주시면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으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채팅기능을 사용해서 질문을 우리 주최 측에게 보내주면, 주최 측에서 수거해서 저에게 줄 것입니다. 그럼 고봉준 교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 고봉준

감사합니다. 방금 문정인 교수께서 소개해준 충남대학교 고봉준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입니다. 그동안 환황해권에서 교류협력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환황해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대사님들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가능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션에서 그러한 발전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들과 많은 토론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러한 교류협력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의 행동과 그 배경이 되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황해권 프로세스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인식전환과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황해권 프로세스에서 평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소극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입니다. 그렇지만 환황해권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는 굳이 평화프로세스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황해권 국가들 간의 공동노력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적대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 평화 관점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유럽의 경험처럼 서로 간 직접적 폭력의 위험성을 약화시키고, 적극적 평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극적 평화를 제도화시키는 데 중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프로세스 발전방향은 소극적 평화를 제도화하고, 적극적 평화를 그 기반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레짐 이론을 꼭 이야기 해왔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평화가 제도화 되어가는, 제도화가 유지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국제정치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레짐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이익이 수렴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제도화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길에 이르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냉전 시기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지정학적 대립구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중대립이 세계수준에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종석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황해권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적극적 협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7년, 미국이 발표했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그러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사이 소위 강대국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과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러분이 목도하듯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양국 간 강대국 경쟁을 넘어서는 대륙구도가 역내에 고착된다면,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지역 국가들이 매우 경색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미국을 위해 혹은 대신해서 지역안보 강화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응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 미, 일 3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지만, 미일 동맹이 주축돌이라는 미국의 거듭되는 언급은 점차 일본의 보통국가화 또는 재무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이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라는 아이디어가 사실상 일본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러한 구상이 미국의 대중경제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일본이 향후 지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전적으로 환영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중경쟁의 격화가 지역 내 또 다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은 문제는 핵무기와 관련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탈퇴로, 미국의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 및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동아시아에 지상발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있고,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미중 강대국 대립 속에서 한국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행보는 작년에 2018년에 완료된 뉴 스타트 협정의 연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착으로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군축노력이 큰 의미를 못 가지면 비확산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는 특정 국가가 핵무장을, 핵무기 제조를 정치적으로 결심했을 때, 그것을 국제사회가 막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북한비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군축 또는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비핵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 핵군축 사례를 봤을 때, 누가먼저 핵군축의 이니셔티브를 주는지가 관건인데, 북한이 만약 구체적인 핵포기 조치를 취했을 때, 여전히 미국은 막강한 핵 공격력을 보유할 것이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정권안보 위협을 갖고 있다고 보는 북한이 가세해서, 냉전 시기처럼 북방 삼각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대중군제를 위해서 한, 미, 일 삼각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은 소위 환황해권 프로세스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미중 간 세계적 수준에서의 대립구도, 그리고 환황해권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비군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이는 환황해권 국가들 내에 군사력 증강은 절실한 안보증진을 위한 노력이기 보다는 가상적국의 국방력강화, 동맹으로부터의 요구, 그리고 최신기술력 유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들은 국제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간 작동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국안보증진을 위해 취하는 행동들이 결국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고, 그런 국가들이 맞대응하게 만드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강력해진 군사력으로서 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군사 정치적인 신뢰가 부족한 환황해권 국가들이 기존의 불신과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유지를 해낼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는 전략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군비통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군축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핵능력을 추구해서, 핵무기를 확보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핵무기

를 포기한 사례는 사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전망은 굉장히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면, 그것을 당면과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협상에 있어서 기대수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개념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되는 핵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점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체제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완전 비핵화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완전히 비핵화한 북한의 체제보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환황해권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추진했던 미크타(MIKTA)와 같은 방식의 유연한 협의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크타의 유용성은 참여국들의 공통 이익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크타라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제는 환황해권의 교류협력네트워크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글로벌 공익으로서의 이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는 국가 하위 수준에서 교류협력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개발협력,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식량안보, 해양레짐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이 논의하기 원하는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북한의 참여의지를 제고한 다음에, 추후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건은 북한을 어떻게 협력체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주의 이론은 평화 자체보다는,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촉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주의 이론에서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갈등 구조를 평화적인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환황해권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의 있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긴장요인들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이러한 포럼을 통한 전문가들 사이의 인식공동체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계기가 주어지는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환황해권 국가들 사이에 예컨대, 공동 방역 노력들을 발전시키는 것도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좋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주체가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위샤오화 선생님. 우리 고봉준 교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위샤오화]

네. 먼저,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문정인 교수님께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화면에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뵈 수 있어 굉장히 즐겁습니다. 고봉준 교수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니다. 논문은 굉장히 오래전에 받아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저의 세 가지 짧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고봉준 교수님께서 환황해 협력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셨고, 그 안에 협력에 관한 장

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주었습니다. 아주 심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보완이 설명을 드리자면, 소극적인 요소 또는 문제 또는 장애요소를 살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요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발전에 유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북한의 전략적 조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중심으로 발전한다는 전환을 살펴봐야합니다. 얼마 전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신호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인 한국, 일본, 또 우리 중국이 이 3개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공동적인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 요소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물도 봐야하지만, 적극적 요소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의 참여자,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상은 방금 고봉준 교수님께서 제안해주셨던, 미크타의 역할 강조입니다. 중등국가 협력체로서 자체적으로 우세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황해 협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은 한중일 협력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중, 일 협력체를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미크타가 2013년부터 한국에서 제안하고, 현재까지 발전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는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끼리의 협의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자적인, 더 많은 참여자가 있는 협의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 중, 일 협력이 환황해권 협력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협력은 좀 더 미시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좀 더 거시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고봉준 교수께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체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에서 접근한다면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중단되고 또 각국의, 각자의 대응을 해왔는데, 북한의 경우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재해를 받고, 또 코로나에 충격을 받는 국가라고 이야기 할 만큼, 북한은 코로나도 방역을 하고, 교류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중, 일 3개국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합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하우나 경험이 북한에 맞는지, 필요한지 분석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북한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위샤오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니시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니시노 준야]

안녕하십니까. 일본 게이오대 니시노입니다. 이번에 충남과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최하는 포럼에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정인 특보님과 같은 회의에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에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봉준 교수님 발제 잘 읽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글로써,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제하신 내용에 따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평화프로세스의 장애요인으로 다섯 개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 중요한 요인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요인입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나 북핵문제 그러한 요인들을 불안요소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보정책,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동북아, 그리고 역내에 안보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5-6년 뒤에는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의 국방비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 국방력 증강이 지역 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안보능력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관리하거나, 역내 국가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핵문제입니다. 고봉준 교수께서 제시해주신 북핵 해법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비핵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북한의 진전도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연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합의를 도출한 한국정부가 조금 더 노력해서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비핵화의 첫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화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도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마도 규범과 룰이나 가치 등의 공감대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역내 주요국가인 한, 중, 일 협력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샤오화 교수 말에 동의하고, 한, 중, 일 협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중, 일 정상회담도 꼭 한해 한 번씩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양자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있습니다. 중일관계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전착되어 있고, 한일관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악화돼 있고, 한중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이 지역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 간을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요인이 아직까지도 지역 내 정치에는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번에 일본에서는 정권교체 스가총리가 취임했는데, 이러한 계기를 잘 활용해서 리더십 간 소통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평화프로세스를 진척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같은 포럼을 하는 이유는 국가만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지자체나 개개인이 더욱더 주역이 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과 한반도평화포럼의 뜻깊은 포럼을 개최하고, 참가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인]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김용현 교수께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미나 기조 발표, 토론자를 모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토론자로 있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세미나와 관련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황해 협력 범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황해 생명공동체, 환황해 평화공동체, 환황해 경제공동체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우선하고 있는 부분은 세 공동체 중에서, 당장 급한 것이 생명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동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동체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는 국경도 휴전선도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환황해 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북한을 빼고 코로나 협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코로나 협력의 가능성을 찾는 것, 그리고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환경협력이나 또는 역내 국가 간 다양한 협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력을 좁혀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코로나 백신협력,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평양 종합병원과 관련된 환황해 국가들이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위한 협력, 농업협력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명공동체라는 측면에서의 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공동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서 니시노 선생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재 가장 중요한 한반도비핵화평화프로세스 문제가 풀리지 않고, 환황해 평화공동체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 문제도 눈앞에 있지만,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환황해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지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관심도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환황해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에서, 과거에 나온 부분이지만, 한중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보수정부, 그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한중 또는 한중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의 산둥반도나 특정지역과 충남 당진, 또는 새만금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현재 한중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평화협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장시켜서 본다면 한중에서 한중일로 해저터널이 연결되면서 그야말로 환황해권 자체가 육상과 해상, 공중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소통과 교통의 접점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경우가 지금 북한지역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지역을 통해서 만주와 중국 해안지대를 통해 산둥반도를 통해서 충청도, 충남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환황해 생명공동체와 환황해 평화공동체, 환황해 경제공동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공동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충남과 지역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가지 구체적인 현안들, 특히 비핵화 문제 현안을 풀어나간다면, 매우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간단히 종이에 적어서 진행요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류샤오타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과기일보 서울지국장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봉준 교수님의 발표와 여러 전문가들 토론을 잘 듣고, 독특한 견해 또한 잘 배웠습니다. 고봉준 교수께서 발표하시면서, 환황해권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다섯 가지를 말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북한요인이 가장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북한의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위샤오화 교수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소련해체 이후 장기적으로 매우 고립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중 수교이후, 외부세계로부터 더 많이 고립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더 많이 고립되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로 한 이유는 내재적인 Logic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폐기 이후에 안보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찾아, 북한의 안보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안보에 있어서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준 교수께서 환황해권의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 하셨을 때, 기회를 창출해서 북한으로 하여 환황해권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북한의 주요도시 평양, 남포, 개성의 경우 환황해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은 북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환황해권의 경제발전, 역내안보시스템에 참여도록 한다면, 기대할만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환황해지역의 안정과 발전변영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징, 텐진, 허베이지역 바로 환황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산둥반도, 라오둥반도 또한 환황해권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환황해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환황해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환황해 해양경제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 논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경제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이라는 요소가 강대국들이 환황해지역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해양을 매개로 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정치환경을 구축하고, 무역의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고 또한 해양경제, 생태환경, 그리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해간다면, 환황해 주변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현 교수께서 공동체 개념을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황해권에 있어서, 해양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이러한 철학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에서의 성장의 기회를 공유하고 해양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또, 연안 국가들에게도 공동이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사례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환황해권의 이러한 구도의 변화에 따라 환황해권의 공동운명체 구축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의 발전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에서야 정세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해양통로, 그리고 공동의 해역개발 등에 함께 나서면서, 우리 각국의 해양 이익에 교집합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역내의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토대를 구축하고, 해양운명공동체 의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육지를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전형적인 대륙국가입니다. 바다에 대한 관심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일대일로정책이 제안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 일류운명공동체라는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은 바로 일대일로 동쪽으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국 각계 각층에서 환황해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환황해 역내 국가들은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강화하고 의심은 해소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황해 Land-Bridge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해양 경계설정과 관련해 이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해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중 간에도 있습니다. 또한, 북방한계선에 관련해서도 남북 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협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양 내에 가스, 그리고 오일 자원, 생물자원, 어업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법을 집행하고, 전면적으로 통일되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황해해양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황해지역의 해상안전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오카사카 켄타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카사카 켄타로]

일본 교도통신 오카사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도미타 대사님처럼 어제 일찍 서울을 떠나 충청도에 유명한 해미읍성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충청도 역사의 로망을 즐겼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니시노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지역에서 군사력 방위력, 사실은 중국 국방력 군사대국화에 따라서 일본 규슈지역에서도 방위력 강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슈지역도 환황해 평화프로세스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한국의 국방력 강화도 최근 발표된 바가 있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서 평화프로세스 구축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축과 군비통제입니다. 발표문에서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작전능력강화를 포함해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환황해를 둘러싼 안보관계는 점점 더 위기를 향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축이나 군비통제 필요성은 느끼지만, 군축의 제도화나 다자간 제도화를 위해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군축과 군비통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 핵문제는 환황해프로세스에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북한을 정상적 주체로 참여시키고 논의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움직임을 보면, 핵과 미사일 관련한 사항은 미국과의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 6자회담 틀은 존재했지만, 더 이상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되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미크타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도 미국의 부재로 북한이 관심을 보일지 의문입니다. 결국 핵문제가 풀려야 정상국가로서 북한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을 먼저 핵이 아닌, 협력의제 등으로 이끌어내어 평화분위기부터 조성하는 게 더 유익해 보입니다. 미크타 멤버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북한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일본에 대해 환황해권 평화 구축 장애물이 되는, 보통국가와 재무장화를 언급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본 언론사이니,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뒤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환황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우리 오카사카 선생께서는 베테랑 기자처럼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카사카 지국장께서 하신 질문과 인천대학교 김광석교수님과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 군비경쟁문제,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의 보통국가 우려를 표했는데, 니시노 교수나 오카사카 지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한국국방력이 사실상 금년도 되면, 중기획득 예상대로만 되면, 일본을 앞으로 한 5-10년안으로 국방비를 넘어갈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비 증강을 많이 하고, 핵잠수함까지 가져온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고,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 이것을 걱정한다. 이것이 환황해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오카사카 국장과 비슷한 질문이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덴마크 대사관의 니나 모라르 보엘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의사선생님입니다. 참사관도 보건담당 참사관으로 나와 계십니다. 덴마크가 얼마나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공관 중에서 의사가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보엘 참사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엘 참사관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얼굴을 빚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엘 참사관의 질문은 환황해 프로세스를 한다고 하는데, EU와 같은 국가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러권에서는 보건을 통한 평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특히 환황해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봉준 교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김용현 교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승조 지사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한, 중, 일 해저터널 건설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 이익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김용현 교수와 위샤오화, 니시노 교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중터널 건설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중터널 건설이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국이 지금 신냉전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해저터널까지 해서 사이가 가까워 지는데, 미국이 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총남은 한중터널에 깊은 관심이 있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학습과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전시킬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문정인)한테 한 질문입니다.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장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지역협력이라는 게 중앙정부만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지자체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권한도 예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봉준 교수께서, 아까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역내 군비경쟁 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보엘 박사 질문인 공공보건 역할이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봉준]

간략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을 드리기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군축과 군비통제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만큼 군사력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돼 있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축과 군비통제를 바로 실행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석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북한은 9·19군사합의를 통해 군비통제를 취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몇 년간 큰 무리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군비통제와 군축의 선결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인데, 선결조건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경로로 갔을 때, 어느 일방이 군축이나 군비통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안보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험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실제로, 재래식 무기 감축하는 협상을 진행했고, 협정을 체결하여 재래식무기를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조건들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다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협의, 정부 간 협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북한 협력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결과에 대해 참여행위자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공감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결과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이 느끼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참여국들 간 인식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공공의료보장과 관련된 협력과 평화프로세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대답하기 애매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료보장이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재, 공공재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개발 되었을 때, 과연 국가들 간 균등

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해왔던 장애물들이 여전히 보건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정인]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현 교수께서는 한중일 해저터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Bridge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조금 나눠서 보면, 한반도 중부 이남은 대륙 간 연결을 물론 육상으로 연결도 중요하지만, 터널을 빌려서 해저를 통해 중부 이남은 그렇게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북부지역은 대륙과 연결하여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비롯하여 육상 교통수단으로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도 부분은 또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중일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은 해저터널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입장에서는 서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해저터널이 많은 교류와 협력을 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은 종착지라 해저터널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중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볼 때, 장애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장애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비핵화문제가 풀려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미국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인 제 인식은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한중 협력이라는 왼쪽 날개와 또는 한미 협력이라는 오른쪽 날개와 함께 날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략적 측면에서 우위, 우열을 둘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중해저터널 관련 부분은 최대한 정치적 관계나, 간접적 군사적 부분을 배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가 정리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주변국가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한중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성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는 문정인 특보께서 며칠 간 이야기도 있어서, 보완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문정인]

위샤오화 선생님, 중국 쪽에서 한중터널 문제, 이전에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평택 당진으로 연결한다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해저터널 문제는 중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위샤오화]

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용현 교수께서 말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단둥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역내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면서, 해저터널 관련된 제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뵈게 되어, 물론 온라인이지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저터널 관련해서 비전문가이지만, 해저터널 문제가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측의 많은 학자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중국과 한국을 포함 종합 국력이 향상되고, 또한 기술력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저는 해저터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건설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프로젝트이기에, 이것이 역내 전략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미국은 일본과 그리고 한국의 참여를 바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상대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저터널은 단순한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또한 장기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해저터널 문제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한 바는 지금 현재 중미 양국 간 경쟁문제, 그리고 복잡한 정세로 인해 한중 양국에 전략적인 결단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토론에 말했던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가 거시적인 혹은 전략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과정에서 물론 환황해 경제권의 발전 전망에 있어서도, 북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대화의 의지를 유지하고 또한 현재 선택한 경제성장개발전략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주변국가의 의지를 믿도록 하고, 여기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해저터널과 같은 대형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면, 해저터널 문제에 북한도 해저터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우리 니시노 교수께서는 사실상 해저터널 문제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환황해지역에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공동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시노 준야]

네. 일본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된 시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엔드스테이트에 대한 목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

로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더욱 더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문제에 관해서는, 위샤오화 교수님의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우선순위보다, 지역 역내 위협요소를 삭감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연결성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구상 문제도, 사실상 연결성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구상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일본이나 다른 지역이 주창하는 인도태평양은 중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인]

오카사카 선생님도 북한 핵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카사카 켄타로]

저도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주재했습니다. 그 당시 이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환황해 평화프로세스를 공부하며, 역시 그러한 핵미사일무기가 아닌, 협력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같이 의견교환도 하고, 작은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정인]

우리 류샤오타오 선생님은 평양의 김형직사범학교를 다니기도 하셨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류샤오타오]

아닙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냥 중국말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래도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문대통령이 제시하는 종전선언 다시 시작점을 보고, 다시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정인]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됐습니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님과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장님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가령 예컨대, 환황해권을 하는데, 아까 위샤오화 선생님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대성적인 것으로, 담론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충남은 농업에 관련 상당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의 절강성 같은 곳과 협력관계에 있지만, 거기에도 농업분야에 대해 상당히 강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지방정

부 협력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충청도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방역문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도만 하더라도 단국대학교 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 명지사도 그렇게 하려합니다. 코로나 방역의 가장 성공사례는 어쨌든 중국입니다. 그 다음 한국, 일본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지방정부수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 전부가 아닌, 북한 황해도와 관련된 지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AI센터는 미국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가령 허베이성을 포함 하여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도 이야기했지만, 북경, 청진, 허베이성 연결해서 대규모 경제단지 구역을 만 들고 하는데, 우리 충청도가 청진시와 협력관계에 있기에 그쪽의 과학기술과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상력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고, 소위 행동과 실천력이 합치면, 적은 수준에서 협력하면서, 지금 당장은 북을 어떻게 협력해주는 것을 위해서 지방수준에서 한, 중, 일 3국 협력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은 성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래야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트럼프 행정부 생각대로 신냉전 구도 가 들어오면, 우리 황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중심 동맹에 참 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드, 중국겨냥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중국이 갖고 있는 동풍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할 것이고, 서해항로에 대해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으 로 나올 것입니다. 신냉전이 오면 황해가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 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냉전의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제일 앞부분이 충남이 될 것이기 에 그것을 막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나 NGO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정학적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가져와야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니시노 교수께서 지적을 잘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힘을 갖 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잠수함을 갖고,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이것은 군비경쟁의 촉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경쟁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더 많이 쓰면, 중국은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 지역을 떠나도 한, 중, 일 군비경쟁이 심해져서 평화국면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수준, 시민단체 수준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을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한, 중, 일 3국 동북아에 있어서 군비경쟁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북한도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핵화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니시노 준야 교수도 일리가 있습니다. 류사오타오 지국장께서 말 씀하신대로, 북한은 핵무기가 자기 생존을 위한 유일한 카드입니다. 북한보고 먼저 포기하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연변 핵무기 연구소 까지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이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받겠 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카드를 보여주었으니,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동시교환을 하고, 행동대 행동 방식으로 가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먼저 포기를 유도하는 설득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중대결 첨예화,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록 남북 9·19군사합의가 있지만, 한반도 긴장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황해 평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 지경학적 변화를 잘 직시하여, 특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중, 일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계산할 게 너무 많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관계없이 충분히 추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치, 가능성을 찾는다면 충청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황해 포럼이 중요한 것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은 이게 유일합니다. 경기도도 안 하고, 전라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에서 이런 포럼을 하는데, 제주평화포럼이 한 20년 됐고, 그 다음이 환황해포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재명지사 쪽의 DMZ평화포럼입니다. 아직까지는 환황해포럼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서는 환동해포럼이라고 한겨레신문과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도가 전략적 포지셔닝을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고봉준 교수님 그리고 참석자 분들, 토론자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번영1_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인사말] 서형수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식사 막 하고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주제도 조금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설립해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출생아가 64만에서 49만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구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에서 토론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 저출산·고령사회 상황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논의를 하더라도 초점 자체는 지방정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발제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정부와 관련성을 놓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 잠시 소개부터 하고 진행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실 분입니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문무경 본부장님은 현재 OECD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Network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국가조정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색다른 분인데요.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 덴마크 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덴마크 외교부의 고문반대연구소, 덴마크 국제 엠네스티 회장, 덴마크 인권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덴마크의 경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적합한 나라가 덴마크, 육아의 천국. 지난주 SBS에서 육아 문제 특집 스페셜을 보니까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다가 외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이민을 간 곳이 덴마크입니다. 가서 애를 정말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며 현재의 특히 저출생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육아 문제에 대한 덴마크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분은 신혜중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입니다. 현재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가족, 장애인,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원격으로 참석하신 토론자가 계십니다. 노자와 사치코 일본 도쿄대학교 부교수님입니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쿄대 유아개발교육연구정책센터, 아까 말씀드린 ECEC 현재 부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일본도 인구 문제는 저희보다 먼저 고민하고 있죠. 특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억총활약 또는 지방 창생 담당 장관까지 두고 있는데, 부교수님은 전공이 그쪽보다는 아마 주로 육아 쪽인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발제 한 분하시고 나머지 토론자 저까지 해서 네 사람이 토론하겠는데, 우선 발제는 문무경 본부장님께서 20분간 발제하시고 나머지 토론 순서는 신혜중 10분 하시고 그다음 니나 모라르 보울께서 10분, 그다음에 일본에 계신 노자와 사치코께서 10분하고 제가 10분 정도 할애한 다음에 다시 발제자에 대한 질문 있으면 발제자가 짧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무경 본부장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문무경

방금 소개받은 육아정책연구소의 문무경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12월에 국무총리산하 국책 연구소로 설립되었고, 방금 서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포럼의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충남도청 그리고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인데요. 제가 요청받은 것은 주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출산, 저출산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출산이어서 흔쾌히 수락을 했다가 조금 지나서 굉장히 챌린징한 과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것이 해외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이라는 책자를 발간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발표의 배경과 그리고 일본의 지자체 소자화 대책 강화 사업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들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 하는 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굉장히 초저출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단독가구 그리고 한 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의도적 무자녀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혼율 증가로 인해서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초혼 연령이 중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가족생활주기도 상당히 변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지원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연구들도 그렇고 정책들이 주로 재정지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프트웨어,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X세대, Y세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은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젠더 관점에서 평등한 성역할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다른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처럼 일과 가정, 일과 생활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양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말에 제4차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이 2018년 말에 수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1차 때는 육아에 초점을 두고 보육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2차 때는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좀 더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도 육아휴직이라든지 난임 제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제3차 때 이르러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삶의 질 제고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동기는 그동안에는 저출산

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것과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출산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의 결과물로 저출산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 방향성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강조하게 되었고, 아이 키우기에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하자고 하여 드디어 시간 정책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정책을 평가한 연구들을 보면 그동안 이 연구들이 돌봄 지원이나 주거지원 중심에 전체 사업 예산의 82%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금지원 강조 정책이 지속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별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2기, 이번 8월 말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본 부처 간의 공동부처에서 인구정책 TF 4대 전략 및 세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올해 말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고령화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는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적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적응력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도 자료에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경제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고령화에 대해서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및 그리고 고령화 대응 여러 가지 산업들을 새로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방금 서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조금 접어두고요. 이따가 패널 토론으로 오신 분들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저출산 취약자 내 저출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시행계획을 보시면, 시행 계획 중에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 이렇게 크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함께 돌보는 함께 일하는 사회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000억,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도 전년 대비 12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포럼을 호스트하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예산 사업이 전년 대비 12.9%, 약 13% 증가했고, 여러 가지 사업 수도 411개나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의 저출산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산 지원정책만 보더라도 거의 2000개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 자료에 보면 2.1%나 증가했고요. 주로 다섯 개로 사업 분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전에 결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육아,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다섯 개로 크게 사업을 나눌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80% 이상이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출산, 결혼 분야 지원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신규 사업들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시도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은 OECD에서 조금 오래 된 자료이긴 한데,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경제 발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어떤 다이내믹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제시한 벤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Social Dynamics 사회적인 요인에 보시면 젠더 디바이디드라든지 일하는 사람의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Regeneration Strategies 이것을 회복하면, 그런 전략으로는

Green growth,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Green growth. 그리고 White economy는 의료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버사업들 같은 경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요소로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지만, 이것이 2012년 자료이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단편적으로 사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한중일로 넘어가면 오늘의 한중일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1970년부터 95년, 2015년부터 보시면 똑 떨어지고요. 보라색이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고요. 합계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물론 저출산의 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산아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2015, 16년에 한 자녀 산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전면적으로 두 자녀를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산아제한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는 다르게 산아제한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방임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고령화가 급격히 소산소에서 그런 사회로 되기 때문에 훨씬 고령화에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고 진행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소자화 대책에는 인구감소가 지금 소산소사의 형태로 되었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중소도시들도 쇠퇴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비용이 고령자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소자화 대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특징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결혼지원 정책에 일본은 최근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동을 위한 의료비 같은 것들, 그리고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전업주부를 위한 모임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3세 미만의 전업주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자화 대책의 강화 사업을 미즈비시와 리서치 컨설팅 주식회사에서 2020년도 3월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소자대책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왜 이것이 낮으냐고 했을 때 재원이냐,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자화 대책에 결혼에 대한 대응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서는 재원이냐 인적자원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작은 단위의 시구정촌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든지 대응조직 체계, 거버넌스가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보시면 이런 사례들. 제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합계 출생률이 높은 평균보다 평균적으로 웃도는 네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그것이 후쿠이현, 가가와현, 나라현 도쿄도인데요. 이 네 개의 현에서 각각의 한 모델을 선정해서 결혼과 출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 변인들을 변화와 그리고 자녀 양육 관련한 인식 조사, 사례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에 보시면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을 두 개의 축으로

했구요. 네 개 현 중에 후쿠이현 후쿠이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높고 여성 취업률도 높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가가와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은 높지만 취업률은 낮은 지역, 도쿄도는 출산율은 낮지만 취업률이 높은 지역, 유형 4는 나라현, 출산율도 낮고 여성 취업률도 낮은 지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징을 말씀드리면 유형1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지방행정하고 민간이 연계해서 결혼 지원이라든지 자녀 양육하는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행정이 단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높이기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가와현 같은 경우도 근무지와, 여기는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 취업률이 낮은 지역의 유형인데요. 근무지와 주거가 근무지에 가깝게 주거환경을 만드는 가까운 마을 만들기,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환경을 안정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녀 양육 친화 환경과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도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쉽게 상상하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최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맞벌이 세대에 대한 양육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보육이라든지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심지어는 고교생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전국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나라현 산고초 같은 경우 출산율도 낮고 여성 취업률도 낮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도 점점 여성 취업률이 상승하는 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최근 5년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립 초·중·전체 학교들을, 우리로 치면 컴프리헨시브 스쿨 모델 같은 것인데요. 하나로 통합해서 차세대 교육 투자에 힘을 쓴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를 전체적으로 100% 방문해서 돌보아준다든지 환아 보육이라든지, 대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성공적으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지표를 봤으면 해서입니다. 중요한 건 지표가 있는데요. 13가지가 쪽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육아친화적인 마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여러 시 지자체들이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조금 환경은 다르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산 양육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마다 한두 번 정도는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실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 양육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발히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로 출산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여성 취업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거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각 지역별로 사업 유형을 보시면, 아까 지자체 사업이 다섯 분야로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탄력근무제, 출산 확대하는 정책, 주거 주택정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북성이라고 해서 호감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많이 있는 중에 파란 점이 있는 곳이 호북성의 호감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향후 지방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출산 자체가 종합적이고 단면적인 의사결정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사회와 자연환경까지 고려해야 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현금 지원, 그리고 교육 및 상담, 특히 지자체에서는 서비스와 교육, 더 나아가 홍보. 이런 수준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주거와 관련해서 공간이라든지 교통, 청년 일자리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 서비스들이 제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을 한다면 어떤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의 지속, 효과성 그리고 아까 시간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총량이 중요하기 보다는, 총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반드시 필요할 때 휴식을 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만족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결혼이 아니어도 비혼으로 구성된 가족들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개별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 저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네트워크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저희가 최종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보면 저희 설문 조사에서 20~25%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일본 지자체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것처럼 저희도, 물론 지방에 대한 사례집이 매년 발간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중에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소자화라는 용어가 소자가 적을 소자에 자자가 아들 자이죠. 일본에서의 소자화를 저출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 간의 4분위 표로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노자와 사치고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신혜중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토론]

[신혜중]

저는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박사님 발표하신 것을 재료로 해서 저출산 문제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라 훨씬 더 어렵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준비했는데, 사실 문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들 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섞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정도 됐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었고 내년이면 4차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제가 찾아보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투입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효과성이 굉장히 낮

다. 오늘 서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들을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이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복지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위주이고, 무엇보다도 정책 수요자들의 인식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세계가 다 줄어 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모두 아시다시피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해주신 것처럼 3차 계획이 시행 중인 2018년 12월에 목표를 새로 바꾸었죠. 그래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기 인구정책 TF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4대 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저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바꾸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의 한 부분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로 목표를 재구성한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2기 인구정책에서 제시한 4대 전략과 세부과제를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고령화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 물론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하겠지만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는지 밑에 깔려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에 잘 적응을 하자는 기조로 가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야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중일 세 나라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들의 예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정책의 철학을 보면 출산주의적인 목표, 수평적 재배분, 수직적 재배분 여성의 상대적 지위 향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책 목표를 보면 저는 다른 것들은 다 그런데 가족 간 빈부격차나 직장가정과 가정의 양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정책의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가족수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2004년, 최근이 아니네요. 영유아환영정책 체제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출산장려제도를 통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1999년에 도입된 PACS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지만 출산을 하는 것으로 인식들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여기서는 동거 가족을 인정했습니다. 동거 가족도 똑같이 결혼 서약을 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출산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혼외출산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혼한 부부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지면서 혼외출산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동거 가족 내에서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정리해보면, 가족 관련한 예산이 GDP의 5~10% 정도이고요. 가족과 관련된 수당이 30여 가지나 되고,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가족생활주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 가정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외 포함 모든 출산에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정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는 출산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랑스를 보았을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새롭게 저출산 문제에 가질 때 기존에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신 것처럼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질 높은 도움을 주는 것.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돌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여성들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충남에서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낳아 놓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키워준다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정책보다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현장성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지방 유형별로 비교해서 효과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충남에서는, 충남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 유형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책들을 적용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이 성별 영향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떤 파급효과를 끼칠지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시하신 그런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족생활주기별로 욕구와 정책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가족들이 처해 있는 가족생활주기별로 적절한 정책들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양부모 가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통의 가족들, 정상적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한 부모 가족도 많고 다문화 가족도 많고 이주 가족도 많고 청소년 부모 가족도 많고 조손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관심, 돌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신혜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참고로 프랑스 저출산 정책은 가족 정책의 큰 테두리에 미치기 때문에 가족 정책은 저출산 정책하고 빈곤 정책이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정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니나 모라르 보울.

[니나 모라르 보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신 분들 또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사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덴마크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의학 박사입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정부 간 협력을 보건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덴마크의 복지부 간의 협력 협정에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든가 저출

산 분야 등에서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분야 중에 그 두 주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포럼에 초청받게 되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덴마크의 출산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덴마크는 작은 국가입니다. 유럽에 위치에 있고 크기는 한국의 크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국의 인구의 1/10 정도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덴마크도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똑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덴마크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서로 간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인구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밝은 빨간색은 1980년대이고 짙은 빨간색은 2020년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1980년대에는 45세 미만의 인구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는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 고령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현재 1.79 정도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덴마크의 출산율은 2.1이라는 대체 출산율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1차, 2차 석유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불안정성이 증대가 되었고, 금융적, 사회적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무료로 임신중절시술을 1973년부터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출산율이 그 당시 약간 감소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인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를 보자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에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성공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커리어를 갖기 위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 같은 경우에 이것 역시 여성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갖고 가족을 갖게 되는 시간을 서서히 늦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양성평등의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의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덴마크에서는 남녀 소득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실 아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아이 벌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면 여성들이 소득 측면에서 그리고 커리어 측면에서 남성에게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이와 같은 아이를 갖는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가족을 갖는 것을 서서히 늦추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산 나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3세였지만 현재는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여성들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갖는 나이가 30세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물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의 나이대는 20~2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임신 확률이 17%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산모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는 임신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의 비정상 또한 이와 같은 유산에 대한 위험이 그리고 다른 위험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 즉 높은 음주율, 높은 흡연율,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단들 이와 같은 것이 저출산과 관련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덴마크 남성 같은 경우에도 남성들의 정자의 질과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낮은 출산과 관련한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또한 자궁 내에서의 출산 이후의 건강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선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그로 인해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급, 출산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신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우리가 모든 부모에게 제공합니다. 미혼모이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간에 동등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육아시설과 유치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아이들은 보통 한 살이 되었을 때부터 육아시설에 가서 있게 되고, 어머니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동양육, 그 현금흐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지원을 하는 것인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료 불임치료를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또한 미혼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약 4만 건의 불임치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들을 위한 것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46세 미만의 여성만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만약 과체중을 경우에는 체중을 빼야 되고, 또한 흡연을 한다면 금연을 해야 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게 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엄마와 아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의 정자 수가 40%씩 감소하는 것은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됨에 있어서 시간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이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육아휴가를 남성에게 2주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공동으로 36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할 수 있고 그 중 18주는 엄마가 유급 휴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성평등의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여성들이 아이를 가짐에 있어 아버지가 육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니나 모라르 보울 참사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경력은 다양한데 원래는 의사이시군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불임 시술 지원이 4만 건이라고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인구수 대비 훨씬 저쪽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신 초산 연령, 첫 애를 낳는 연령이 30세. 불행히도 우리는 32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출산율 그래프를 보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가장 낮을 때가 1.4였습니다. 지금 1.7이니깐요. 우리나라가 지금 0.9, 금년엔 0.8이니깐 오히려 1.4 같으면 부러운 수치고요. 제일 발표에서 놀랐던 것은 덴마크도 남녀 간의 육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결국은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결국 우리가 말하는 독박육아가 일부는 아직도 덴마크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 일본의 노자와 사치코 교수님 토론 들겠습니다.

[노자와 사치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대학의 노자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서 저를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학연구과에서 특히 보육과 관련된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무경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금년 5월에 저출산 대책대강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약 5년마다 다시 정해지는 것이고, 제4차가 발표된 것입니다. 주로 결혼 지원, 임신·출산 지원, 일과 자녀 양육지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입니다. 이런 저출산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해서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문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1.26이 가장 낮은 숫자였고요. 그 후로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19년에는 1.36으로 떨어져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로 1990년대에 이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육 확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양육 지원, 이것으로 그때 당시는 주목을 했었는데 2001년부터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6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일·육아 양립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일하는 환경을 얼마나 잘 개혁해줄 수 있느냐, 양육과 일, 생활 이런 것들을 양립시켜가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줄 수 있겠느냐가 대단히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이 아까 문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결혼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 결혼, 그다음에 출산한다는 가치관이 뿌리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결혼을 지원해주어야만 출산으로 연결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 보더라도 출생률과 마찬가지로 추이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조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는 답변을 해주신 분이 남녀 모두가 많았습니다. 50% 정도가 그러한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와의 만남을 지원해주는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래프는 고용형태에 의한 혼인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낸 것인데, 일본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비정규직입니다. 파란 선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바로 아시다시피 30~40세 정도의 정규직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결혼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환경을 정비해줘야 된다, 취직자리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즉 경제기반을 지원해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은 출산과 관련된 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적인 내가 낳고 싶은 아이 수가 몇이냐는 것이 파란 막대그래프이고요. 핑크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실제 아이 수이고, 추가할 아이는 몇 명 정도냐는 것이 보라색인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왜 낳고 싶은 만큼 낳지 않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임을 답변으로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므로 내가 낳고 싶은 만큼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인식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3~5세 유아교육 보육이 일본에서 무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요인은 아빠의 양육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젠더갭이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장시간 근로가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자녀양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은 분, 또 육아에 얼마만큼 관여하느냐, 휴일에 육아하는 시간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남성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를 갖는 것과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과 자녀양육을 양육할 수 없다면 일본의 여성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지만,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전부 다 혼자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을 보시면 지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입니다. 11개이고요. 전국보다 조금 높은 것은 36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더라도 아까 문 선생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보지 않겠습니다만, 일본의 저출산 대책으로 보더라도 지자체에서의 대응을 정부가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녀 양육이라든가 결혼 부분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든가 NPO, 이런 쪽에서 역할분담을 더욱 촉진해나가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처럼 나오는 것이 원활한 지원, 결혼, 임신, 출산 이런 식으로 끊임 없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제가 상세한 설명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역시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

근에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역시 코로나19가 불안했었을 시기에 임신 신고율이 10% 정도 줄어들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불임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감을 가지고 임신이라는 것을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분석은 앞으로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영향, 이런 부분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상을 준다든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대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부분에 대한 지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시니어 세대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최근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60세 혹은 65세 정도가 정년퇴직 연령인데요. 그런데 그 연령대는 지금 세대로 본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여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이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활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시니어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그 안에 다양한 사례를 담아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니어층을 위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을 서포트하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남성들은 사실 육아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최근에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양육과 같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PO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사실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 실정에 맞춘 지원, 여러 가지 대응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내년의 출산율, 출생아 수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자와 교수님이 시간을 더 쓰는 바람에 제가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한 60%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출산율 목표를 정해놓고 출산율을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겠다고 목표를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까지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일본이 일억총활양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 하면, 일본이 추세대로 장래 예측을 하니 2060년이 되면 1억 2500 정도 되는 인구가 8천 8백만까지 줄겠더라. 아베 총리가 다시 보니 도저히 안 된다고 하여 2060년도에 1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여 일억총활양이라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러기 위해 2025년까지 1.8을 회복하자, 그리고 2040년에

2.1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까 모두 발표했듯이 재작년까지 1.4였던 것이 거꾸로 작년에 1.3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출생 자체, 저출생 문제 자체를 국가의 정책, 특히 계수 정량목표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이 일본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의 범위,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토론 겸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생 고령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지방 소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세라면 국가 소멸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저출생·고령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율 추이죠. 우리 통계가 1960년부터 통계가 있는데요. 까만 선이 우리나라 표입니다. 출발은 가장 높게 시작해서 현재 2018년 같은 0.98, 작년에 0.92인데요. 제일 낮게, 그러니까 가장 높이 시작해서 가장 낮은 단계. 다른 나라를 보면 2.0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내리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70년부터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70년부터 50년간 쭉 내려가는데, 순탄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크게 굴곡이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1982~1984년 사이 2년 사이에 한 17만 명까지 1차 인구절벽이 있었고, 2000~2002년 사이에 15만 명 떨어집니다. 2차 절벽. 그다음에 2016년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는 3차 절벽인데요. 80만 이상 낳다가 60만 대, 40만 대, 다시 30만 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1차 인구절벽은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아이가 적었던 시기이고요. 2차 절벽 때는 IMF, 평생 직장이 없어지면서 결혼도 출산도 늦춥니다. 3차 절벽은 1차 절벽 때 떨어진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적어진 이유 하나, 그리고 현재는 결혼을 더 늦게 하고 있고 둘째를 안 낳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불과 5년 전에 2015년 출생아 43만 8천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출생아는 27만 3천이 될 것입니다. 5년 사이에 현재 17만 명이 줄고요. 매년 약 1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일본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대비 코로나 이후에 결혼 건수가 16% 줄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이 더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10% 떨어지는 것이 내년에 계속 10% 떨어지면 2년 뒤가 되면 20만 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률은 아까 전에도 1.0 이하로 떨어진 나라 자체는 우리나라가 2년 새 유일한 겁니다. 0.8 수준이고, 30만 대 아래쪽에서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07이 되어야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우리가 작년 인구 추계를 1.3으로 잡았을 때 1.3으로 가면 3세대 정도 가게 될 경우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가 1/4로 줄어듭니다. 지금 0.8 정도 가면 3세대 정도, 90년 지나면 100명에 5명이 됩니다. 한 세대 더 가면 120명에 100명이 2명이 되는. 지금 현재 이 추세 대로 지속하면 멜서스가 이야기했던 기하급수적 인구 팽창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인구감소가 되었을 경우에 100명에 2명, 1/50이 되는데 120년이 걸린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현재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그 추세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령화를 보겠습니다. 아까 본 것과 반대의 그래프죠. 우리 시작은 가장 낮게 시작해서 2.6%였습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가 45%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을 따라잡는, 일본이 2043년 되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를 거울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출산율과 고령화를 자체가 우리나라가 독특한 궤적을 그리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 20년입니다. 지금 1955년생부터 1차 베이비붐이고요. 2차 베이비붐의 끝이 1974년생입니다. 그 20년 동

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 20년에 1700만 명씩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금년부터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85만 명씩 넘어갑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고령인구가 813만, 빨간 그림입니다. 1722, 900만 명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45만씩 늘어납니다. 그만큼 숫자가 생산연령인구에서 빠집니다. 매년 45만 명 빠지고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2040년부터 2060년까지는 총인구도 줄게 됩니다. 40년부터 매년 40만 명씩 줄게 됩니다. 그리고 5200만 인구가 2100년 되면 2500만으로 줄게 됩니다. 노년층이 거꾸로 늘어나는 거죠. 전체 인구는 800만이 줄어드는데 노년 인구는 100만 명 늘어나니까 밑에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800만 줄고 역시 유소년인구도 150만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 것 보지 말고 제일 밑에 있는 중위연령을 보시면, 중위연령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인구 자체를 나이가 많은 순에서 젊은 순으로 쭉 세워서 가운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43.7세인데요. 이것이 2040년 되면 54.4세, 제일 마지막 칸입니다. 2060년 되면 61.3세입니다. 환갑 지난 분과 지나지 않은 분이 똑 같아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2060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장래인구 추계가 21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0년, 60년 동안 계속해서 중위연령이 60세가 되는 나라. 회색나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도 전기 고령자, 중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특히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77만 되는 거죠. 2040년 되면 230만, 2060년 되면 5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조사해 보니까 2018년 기준에서 총의료비가 전체 국민 평균 180만 원 정도 쓰는데요. 65세 미만 정도면 114만 원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1인당 58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85세 이상은 1200만을 씁니다. 한 분위, 한 해 쓰는 것이.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 세대의 국민 의료비, 장기요양비라든지 의료급여까지 포함된 수치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아까 일본이 항상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년에 고령화율이 15.7에서 2040년이 되면 33.4%가 됩니다. 현재는 6명, 7명 중 한 분이 노인인데, 20년 지나면 세 분에 한 분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9년 걸렸습니다. 일본이 39년 걸렸던 고령화의 전체적인 속도를 우리는 20년만에 가야 된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은 8.5%밖에 안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의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밑에 나오듯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현재 43년 되면 고령화 수도 넘어서고 전체 중위연령 자체도 일본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저출생 부분뿐 아니라 고령화에서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류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저희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이나 중앙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준비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수]

시간이 10분 조금 못 남았는데요. 혹시플로어 쪽에서 질문하실 분 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질문 준비 되신 분 안 계시는가요?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발제자의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문무경]

저는 오늘 덴마크에서 오신 토론자께서 저출산이나 고령화에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관점을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말씀해주신

신혜중 교수님, 일본에서 노자와 사치코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 생애적 주기 관점에서 그야말로 촘촘하게 빈틈없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자세이기 때문에 중앙에 대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시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같이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또 일관성 있게 또 어느 정도의 집행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그리고 또 고유한 지방의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해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서형수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저는 이 주제를 하면서 올해 부쩍 많이 느낀 것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이동하는 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자와 교수님께서 끝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령 인구와, 저 같은 경우 취약자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젊은, 어린 세대와 어떻게 연결하여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사업들이 저희도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지혜나눔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형수]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에서 노자와 사치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나 모라르 보울 감사드리고, 신혜중 교수님 감사드리고, 문무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플로어에도 감사합니다. 이상 포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번영2_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인사말] 허재영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환황해포럼을 맞이했는데, 오늘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의 의미는 학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바닷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토론자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소개부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 육근형 박사님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님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님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님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님입니다.

충청남도가 바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바다이니, 고기 잡아 먹고, 김 양식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주제가 환황해 포럼인데, 지구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있고, 바다 위의 몇 개의 대륙이 있는 것입니다. 대륙은 교통편이 단절돼 있지만, 바다는 전 세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근형 박사님의 발제를 들으시고, 우리 시장군수님들의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는 15-20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은 우리가 3시까지 꼭 마쳐야함으로 시장군수님겐 기본적으로 5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더 필요하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님의 주제 발표를 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발표] 육근형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개발원에 육근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시겠지만,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5년 전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할 때,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이유로 갔습니다. 사실 바다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남도 있고, 전국 모두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 부산만의 바다가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가게 돼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청남도 안쪽 가로림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낙지도 잡았고, 그래서 애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가 주로 충남 황해를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 분야보다는 국가 전체차원에서 충남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군수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오프닝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장수는 많지만,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체 현황을 보면,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그 전에 환경부가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예컨대,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이나 습지면적, 이후 생물의 양을 많이 조사해왔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에도 많은 갯벌 자체는 2000년대 들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들도 갯벌을 매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또 도서관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도서는 다 아시겠지만, 밀도로 치면 필리핀처럼 많습니다. 지극히 해양국가임은 분명합니다. 생태계나 수질도 많이 안정돼 있고, 자료만 놓고 보면 수질도 사실 1-2등급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70-80프로 도달했습니다. 일부 오염된 해역이 많은데, 사실 충남은 그렇게 오염된 곳이 많진 않습니다. 생물종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조사하여 결과도 내고 있습니다. 경기, 충남 각 지역별로도 나누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종수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특히 경기, 충남, 전라권으로 이루어진 갯벌은 생물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래쪽 그림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보호구역면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보호구역 중에서 국립공원은 거의 지정되지 않고, 최근 추가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국민재산권 문제로 반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안보호구역 자체는 계속 늘어왔고, 이미 충남권에도 가로림만, 사실 생물보호 구역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서천갯벌까지 거의 전 연안에 우리가 보호구역을 충남에 갖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수욕장 경우 연간 1억 명 가까이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 인구 자체도 전국인구가, 절반가까이가 4대강 수역이 아닌 나머지 수역, 우리 위원장님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만, 사실은 4대강 5대강이 어떻게 보면, 유역면적으로 보면 많이 차지하지만, 사실 인구로 보면, 연안이 절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말할 필요 없이, 거의 3/4이 연안에 있습니다.

사실 인구를 보시면, 앞서 말했지만, 연안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특히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그림처럼 그렇지만, 갯벌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갯벌연안지역을 따로 뽑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인구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 1% 내외로 인구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령화입니다. 노령화가 사실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왼쪽 2015-2019년만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노령화 진행되는 곳이 연안지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충남만 따로 확인해봤습니다. 충남 연안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남이나 다른 곳에 비해 인구변화가 크게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가수, 사람은 얼마나 거기 살고 있냐는 문제인데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권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가 인구도, 어업을 주로 하는 인구도 감소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도 모든 어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사실은 어가소득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마지막자료는 좀 다른 경향이 있긴 합니다. 어가소득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가소득 안에서도 어업소득과 비어업소득을 나눕니다. 어업소득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업외적으로 받는 지원금이나 직불제를 통해서 받는 금액들이 늘어나서 국가정책적 소득은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이지만, 소득 자체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업 자체는 양식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굴과 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부터 뒤집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촌계입니다. 어촌계가 굉장히 재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남권을 보시면, 전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촌계가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충남은 사실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촌계 자료 중에 지금 표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어촌계 계원수를 보면, 충남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곳은 100명이 넘지 않는데, 충남만 100명이 넘습니다. 인원수로만 봐도, 밑에 표는 인원수인데, 전국 어촌계 인구가 약 15만에서 약 12만으로 줄어드는데, 충청도만 12,000명에서 13,000명 2017년엔 15,000명까지, 2018년도 자료는 좀 문제가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시군이 충남입니다. 이게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충남권에서는 어업소득이나 어업과 관련된 어촌계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소득측면에서도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을 보면, 전국연안에 갯벌 축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갯벌관련 축제는 총 17번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충남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권이 수도권에 제일 가까운데, 1-2군데에 불과한데, 충남은 무창포부터 서천, 서산, 태안연안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과 전남은 적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갯벌을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것은 지리적 여건과 갯벌이라는 여건에 있어서 충남도청에서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현안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동향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해양환경 정책 중에 바닷가에 해수욕장도 많지만,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대장균을 해역에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찾는 해수욕장을 만들고, 국민들이 믿고 찾는 수산물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것은 오염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앞서서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특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는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연구원내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 사회,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보기 어려우니, 큰 제목만 보면, 아무래도 인구구조가 공간적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고령화와 세대 격차, 삶의 질 가치관 변화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사실 앞으로 나타나는 유류오염에 대해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당장 배에 당장 쓰이는 선박 기름이 벙커시유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가볍고 휘발성이 강하고 독한 기름을 써서, 이것을 운반하는 선박에서 유류오염이 발생했을 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닦아낼 수 없다는 것이 미래에서 중요한 해양이슈입니다. 정치관련 해서는 시민참여가 늘어나고, 주변국과 지자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뒷부분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아주 간단한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갯벌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수산자원입니다. 거기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가 깨끗한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청정갯벌제도를 통해 적어도 여기서는 안전하고 수산물은 건강하고, 그렇다보니까 생물자원도 조금 더 생산성이 좋은 그런 갯벌이라는 것을 지정 내지는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거의 안착되어 내년부터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 깨끗한 갯벌이라는 것을, 대장균 지표나 다른 오염물 지표로 적어도 여기에는 다른 곳보다 좀 낫다는 것을 국민에게 쉽게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제를 결합시켜 수산물과 함께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남해안에는 패류를 중심으로 FDA 지정해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공무원이 매년 검사합니다. 사실 그

검사된 것은 미국국민들만 즐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갯벌에, 어촌계, 수산물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갯벌 복원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약 10년 가까이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해수를 소통시키는 연육도로를 터서 물을 소통하는 방식, 또는 갯벌을 다시 돌리는, 기능을 개선하는, 하구를 복원하는, 경관을 개선해서 순천만처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또, 우리 충남에 있는 고파도도 갯벌 재생용으로 좋은 사업을 해서 경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낙동강은 하굿둑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하굿둑 개방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류로 얼마나 많은 염수가 올라가는지 고민하지만, 사실은 바다 쪽으로 내려갔을 때, 어민들의 받는 피해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부남호도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 있는 시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중앙정부를 끌고 나가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좋은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간척지를 사야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도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닷가 옆에 저렇게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염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남호처럼 물을 갖다 쓸에도 불구하고 염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염해피해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사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구가 있으면 이른바 염수지하수를 바다 쪽으로 밀어냅니다. 염수지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토지에 염해피해가 적습니다. 부남호도 전체 토지가 넓긴 하지만, 염해피해나 개방했을 때의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고민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담수렌지라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축제가 많아서 사실은 생태관광은 조금 더 체계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부가 이미 그 작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마을이 조개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끝나다보니, 파괴적이고 그러다보니, 오래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후지에 있는 어촌과 결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갯벌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충남도가 또 축제도 많으니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황해이다 보니까 동북아,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네덜란드 쪽에 와덴해를 보면, 과거 바다표범을 가지고 관련된 3개국이 협력을 맺어 공동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3개국 협력의 시작이다.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로 가는, 아주 기초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다표범이라는 아주 쉬운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3개국이 결국에는 공동의 국립공원을 만드는 제도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중국과 이런 부분은 지금 가로림만에 있는 물범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 전에도 그러한 보호조약이 태평양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쪽 사이에서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자료와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도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등과 바다거북을 같이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가만히 놓고 보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다른 걸프만 같지 않게, 공동의 환경보존체가 없습니다. 협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더라도, 환경문제부터 다 가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도 방금 말씀드린 물범과 관련해서 연구 인력도 매우 높고, 국가적 관심도 매우 큼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조성, 그리고 자주 만나고, 협력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협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제가 워낙 포괄적이라 최대한 노력했는데, 만족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허재영

충남은 꽤 오래전부터, 한 7-8년 전부터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연안하고, 생태복원 관련 주제를 도의 중요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남호의 역간척을 주제로 해서 국제심포지엄을 이 자리에서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충남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인 우리 서해안, 충남의 서해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육근형 박사님께서 인구문제를 가지고도 연안을 보니,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알려주셨네요. 좋은 발제 고맙습니다.

참고로 연안하면, 바다하면, 육지와 관계가 없다고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연안의 수질은 육지로부터 오는 오염물질에 연안 수질이 좌우됩니다. 아까 22페이지 보면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일관되게 관리하자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넣었습니다. 이게 연안만 찾아볼 게 아니라, 발원지 또 랑에서부터 지방하천, 국가하천, 그다음 하구까지 하구부근 연안까지 함께 관리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정갯벌 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말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갯벌복원이라는 것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굿둑 문제도 지금 낙동강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지만, 금강에도 우리 하굿둑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생태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해양환경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요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정토론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토론]

[김동일]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해안, 환황해권에 붙어있는 시장군수 자치단체를 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바다를 가지고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겠다고 역할을 하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연의 변화, 여러 가지 요건이, 옛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좋았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건드린 피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모두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이미 회복했어야 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숙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보령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13년 우리 보령시 갯벌이 33.1평방 킬로미터였습니다. 2018년엔 30.5평방 킬로미터로, 7.9% 감소했다. 충남을 보니, 충남도 전국의 13.7%였습니다만, 갯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와 환황해권 군수님들과 협의해서 세밀한 원인조사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갯벌이 계속 줄어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갯벌의 면적이 줄지 않고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봤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귀현상입니다. 우리가 동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고기와 서해에서 잡히는

고기의 맛이 다릅니다. 저는 갯벌에서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 보령 앞바다에서 잡힌 꽃게와 인천에서 잡히는 꽃게 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갯벌이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보령 무창포 갯벌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래가 쓸려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한 구간을 재방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창포의 모래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갯벌복원 사업을 하고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70억 원을 사용해서 원상태로 만들면, 틀림없이 무창포에 모래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많은 분들이 죽도 상원에 가봤을 것입니다. 죽도 상원에 가보면, 조금 앞에 재방에서 들어가는 길을, 제방을 쌓아서 들어가는 길에 물을 유통하지 않고서 그냥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양쪽 갯벌들이 제 색깔을 못 내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7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바닷물이 통하면서 있는 갯벌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방비가 꽤 많이 들어가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아주시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옛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의 자연 복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사님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입니다. 우리 보령호가 1997년도 보령방조제가 막혀져서 준공됐는데요, 수질 등급이 5-6등급입니다. 이는 농업용수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령호 배수관 물을 완전개방을 통해 수질 및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증가와 생태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전남 순천만이나 네덜란드 남부 스컬트 지역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많은 실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농어촌공사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 투자된 자금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5-6등급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느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여 원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주었을 때,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환경해권 시장군수님들 다 함께 하고 있지만, 지사님과 힘을 모아서 부남호만 말씀 드리지 말고, 사실은 부남호도 중요하지만, 보령호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군수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지난번의 태풍피해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 사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의 경우 1-2호기 중부발전이 금년에 문을 닫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500만 KW 두 가지 굴뚝을 가지고 있어서 1기가 정도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와 환경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좌초산업이라고 하는 석탄 산업을 그만하고, 태양력과 풍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지난번에 2025년까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공공주도용의 공모사업에 외연도 근방에 1기가와트, 6조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어장에 손실이 있습니다. 어장을 관리하시는 우리 어민들께서 자기 어장을 손실하는 결과가 되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풍력발전의 프로펠러가 거리가 양쪽

1K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0M인데, 지금 그것을 세워서 해놓고, 1KM 사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장활동만 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어떤 신문에 보니 오히려 풍력발전을 만들어 놓으니 고기가 더 맛있어서 어장이 더 잘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행할 때, 민간과 공사가 협력주도체를 만들어 함께 사전 동의를 받아가면서 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이제는 석탄 산업에서 탄광 산업, 화력발전에서 풍력발전으로 변화시켜서 지금 1-2호기를 문 닫는 만큼의 대안사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다 느끼는 바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22년 어부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금년처럼 어장이 활성화된 게 처음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장이 잘 관리되고, 정말 풍요로워야 우리 환황해권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촉진해서 해양에너지개발에 따른 어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보령은 진흙을 먹고 사는 고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998년 제1회 머드축제를 시작해서 이번에 23회까지 마쳤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 1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줬습니다. 이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큰 축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머드축제에 다녀가신 분이 4500만 명, 외국인이 350만 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총 1조 2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머드축제 방문객의 평가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세계 해양 머드 박람회를 충남지사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개최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머드를 통해 “빠져라, 즐겨라, 뒹굴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분위기가 아니라, 머드를 산업화하여 머드에서 생산되는 미네랄, 벤토나이트와 같은 원소요량을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산업을 발전시켜 이것이 하나의 산업화 되고, 우리 보령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드산업의 다문화로 인해서 국제해양, 신산업, 해양머드, 해양레저관광 입지를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 연계 환황해권 명품 갯벌생태 관광 종합상품도 함께 개발해내면서 머드가 우리 자연생태계에 주는 큰 영향을 조명해봄으로써, 우리 환황해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생명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하자는 제안으로 제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김동일 시장님은 갯벌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원인조사와 대책수립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갯벌의 질과 물고기와 같은 수산자원의 질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무창포 백사장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죽도의 담수소통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호 역간척 사업은 몇 년 전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이게 부남호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부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태양광, 외연도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머드축제, 140만 명 접속했으면 예상보다 많은 건가요? 내후년 25회째가 될텐데, 그것 또한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맹정호 서산시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충남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환황해포럼을 시작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충남이 해양에 관심을 가진지 6년 정도 돼 가는 것으로 아마 오늘 횡수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고 시작해서, 지금은 해양신산업을 우리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오늘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환황해가 요즘 가장 핫한 곳입니다. 보면 유럽이 세계 중심축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축이 중심이었던 시절, 앞으로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데, 태평양의 축들이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황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평화와 생명, 상상과 번영의 가치들이 환황해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좁혀 봤을 때, 여기에도 도약이라고 적혀있지만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양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가, 해양의 가치들을 찾아서, 이것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전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좁은 의미의 충남이 갖는 환황해 의미는 발견과 도약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산시장이 나와서 왜 바다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서산에도 조그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가로림만이 있고, 천수만이 있습니다. 천수만은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농경지로 변했지만,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또 천수만입니다. 가로림만은 해양 환경의 가치가 전국평가에서 1위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면적의 크기는 넓지 않지만, 그래도 서산의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대한민국의 해양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천수만에 대해서는 태안의 가세로 군수님과 김동일 보령시장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림만을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더 해양의 가치가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림만은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해양의 가치도 뛰어나지만, 조력발전소 문제로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2007년 서해안 유류사고 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로림만을 사수하라는 말도 있었듯이, 가로림만은 많은 아픔과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이 새로운 지속가능성이 보장이 되고, 해양생태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충남도, 그리고 태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해양 정원의 가치 그리고 경제유발효과가 45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500억 원, 보령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가로림만에 해양 정원이 조성되면 아마 연간 한 400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가 충남의 가로림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이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복원 사업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로림만에 있는 고파도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웅도갯벌을 복원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기에,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고파도의 갯벌복원이나 웅도의 갯벌복원 사업이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이나 천수만과 해양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과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것은 그 시대는 그 시대만의 논리와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갯벌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데도 지금의 우리 시대 논리가 있는데, 저는 그 긴 역사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하는가 하면, 저는 자연에게도 겸손해야하지만, 지역주민에게도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소수 몇몇들이 사실은 정책을 결정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바다를 막는 일도 그랬고, 지금은 그 당시와 조금 다르지만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보령시장님과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득과 공감을 얻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미래해안을 담아낼 때, 저는 이 사업들이 그 시대만의 논리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도,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환황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황해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중심은 우리 충남이 되고, 충남의 미래는 서해의 바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러한 충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재영]

네. 맹정호 서산시장님 감사합니다.

해양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이 잘 되서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파도와 웅도 소개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주민에 대해서도 겸손해야한다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무산된 게 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서산지역 주민들과 태안지역 주민 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이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쨌든 전체로 보면, 국가의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지역주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너무나도 일선에서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홍장 당산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홍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반도를 추진하면서 평화공생을 생각하며 6번째 황해포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말 좋은 계절에 한·중·일 황해포럼을 갖는 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이나 지금

이나, 바다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터전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충남도, 당진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저는 당진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해양항만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넓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긍정측면에 여러 좋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간척지를 막아서 농경지를 만들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전국 쌀 생산량 1위 도시입니다. 그런 반면에 간척지를 통해서 넓은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진에 약 천만 평의 산업단지에 만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해용 산업단지에 따라서, 대규모 장치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현대제철소와 동성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3위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단일규모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가 당진에 입주해 있습니다. 해안선이 1960-1970년대에만 해도 약 5만ha정도 되는데, 지금은 약 1.6만ha, 약 70%의 해안, 바다, 갯벌이 없어졌습니다.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는 기초연설에서도, 보령시장님도, 모두가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삽교호 석문호와 대호 등 호수가 생겼는데, 전부 간척지입니다. 삽교호는 아산과 인접해있고, 대호는 서산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석문호는 우리 당진 관할 구역에 있습니다. 이 바다가 막힘으로써, 우리가 공히 겪는 일들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가 변화하고, 갯벌이 죽어갔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갯벌을 살리려면 간척사업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성, 효율성, 민원 때문에 간척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성 효율성도 좋지만 우리가 멀리 보면서 이 아름다운 갯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고 활발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환황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6개 시군 환황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황해권에 접해있는, 우리 경기도와 충남, 전라도, 중국의 단둥, 청도 이런 도시들과 함께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해안에 대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장님이 보령시는 5-6급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석문호, 삽교호, 대호 등이 4급수입니다. 4-5급수입니다.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삽교호는 아산하고 인접해 있고, 대호는 서산하고 인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의 수용성,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논의를 해야하는 구조라 어렵다면, 석문호를 역간척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석문호를 먼저 역간척하면, 석문호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소유합니다. 정부와 충남과 당진시가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 내에 있는 토지가 거의 정부 땅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간척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갯벌을 복원하고, 그러면서 해양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각 시군이 어패류를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류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생존하는지, 성장하는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 순환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영]

네. 김홍장 당진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홍장 시장님은 석문호 이야기를 저한테도 한 2회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간척 사업에 제일

우선순위에 넣어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문호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삽교호 석문호 대호,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원사업하려면 결국은 경제성 분석을 가장 먼저 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것은 비씨분석을 하더라도 미래가치에 대한 판단,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일 보령시장님께서도 제안해주셨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6개시군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앞으로 바다는 딱 구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연결돼 있으니 6개 시장군수님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환황해 지역의 지자체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시군에서 주재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충남이 주도해서 기초단체들 간의 협력, 또는 광역단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석문호 역간척 문제는 당진시 뿐만 아니라, 충남도,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굿둑을 가지고 있는 노박래 서천군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노박래]

네. 서천에 노박래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그런데, 부각되는 게 언론이나 각종 유인물을 보면, 기후환경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실감하고, 무언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은 해안선이 80Km 정도 되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자원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복원에 대해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서천은 서천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항제련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장항선 철도를 놓고 비철금속 제련을 위해서 장항제련소를 만들었습니다. 60여년 가까이 장항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에는 굉장히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남겼습니다. 제련산업은 결국 용광로에 동광석을 녹이고, 그 광석 속에서 금, 은, 동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퍼져서, 공중에 날아가서, 주변 수 십km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반경 몇km에 색깔별로 나중에 분석할 정도로 큰 재앙을 남겼습니다. 결국은 제련업도 끝나버리고, 남은 건 오염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갯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갯벌은 저는 과거에 동해안을 다닐 때, 산업 연수나 공무원 시작해서 이런 저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해안을 다니면, 파란 바닷물에 일출이 있고, 뒤에는 설악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동해안이 부러웠습니다. 서해안에는 갯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서천에 갯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신안, 고창, 순천, 그리고 우리 서천이 갯벌이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 서천은 유부도 장항앞바다 쪽인데, 거기에 멸종위기에 있는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호주나 뉴질랜드에

갈 때, 중간에 영양보충을 하고, 쉬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철새 주요지역으로 메김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서천사람들은 철새는 별 것도 아니고, 잡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중요한 곳으로, 그 갯벌이 소중한 철새들의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넓은 면적의 갯벌을 협약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교육하고, 협의해서 주민들도 갯벌을 보존하는 데, 전격적으로 동의하여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서해도 잘 살고, 서천지역 주민들도 이를 통해 관광소득이나 자연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련소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주변이 아주 황폐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보도를 보면, 요새 대통령 선거에 러스트 벨트에 누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필드라고 고유명칭을 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근방 일대를 정부가 3천억 가까이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했고, 일부 토지는 매수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장항 제련소 근처에 있는 아주 심각한 오염지역을 매수하여 정화사업을 금년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토지를, 주변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에 대해 충남도와 함께 논의한 끝에 브라운 필드라고 하는, 브라운 필드는 말 그대로 평화지역이고, 갈색지역입니다. 이것을 정말 자연지역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습지테마지구로 설정하려합니다. 아까 맹정호 시장님 가로림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사업으로 우리가 이번 정부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친자연적이고, 정말 사람에게, 또 바다에게, 해양자원에게 되돌려줄 수 있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결국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금강 하굿둑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굿둑이 막혀서 기수역이 없어졌습니다. 제련소 옆에 일정구간을 오염된 땅을 정화했는 곳을 기수역으로 만들어서, 금강의 하천수가 내려오고, 서해바다의 짠 물이 만나는 곳으로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화력발전소가 크지는 않지만, 3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화력발전소는 경제적 효용이 다돼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2.5배 크게 만들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발전소를 30년 전에 만들 때, 동백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 좋은 해변을 메꾸어 버리고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해수욕장을 복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전에 그것이 협약돼 이번에 발전소 부지를 다 들어내고, 그 곳을 옛날의 해수욕장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약 5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과거 환경을, 과거의 모습을 재연하여 그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직접 고쳐진 환경으로, 혜택을, 건강을,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부지원 하에 지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원과 보호,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게 돼 오늘 이 포럼이 정말 의미 있고, 시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허재영]

네. 노박래 서천군수님 감사합니다.

장항제련소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참 무서운 것은 어느 정도 환경만 만들어주면, 자기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갯벌에 비료를 주거나, 김을 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기만 합니다. 내버려 두기만 하면, 계속 생산해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버려 두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갯벌의 복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놓아두는 것, 그것이 갯벌 복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전라북도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분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내걸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수유통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은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해수유통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만금과 서천은 어쨌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사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갯벌을 통해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관광도 가능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항제련소 주변은 이미 산업재해를 입은 곳인데, 이에 대한 정화사업을 지속하고있고, 앞으로 습지테마지역이 되도록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도 복원하고 기수역도 복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환 홍성군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석환]

네. 홍성군수 김석환입니다.

오늘 허재영총장님, 육근형 선임연구원님, 시장군수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천수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만은 옛날부터 어족자원의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1980-1995년까지 간척사업이 일어나서, 천수만에서 분리되어 거기는 간월호가 되었습니다. 밖에는 천수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란 25년 정도 되니 간월호에 있는 물들이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만큼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는 것을 보면, 매년 모래를 퍼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놓은 물은 썩게 돼 있고, 살리는 방법은 해수유통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반드시 조력발전을 하던지, 해수유통을 통해 살려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고기들까지 전부 기형입니다. 썩어서 처음에는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냄새가 나서 가지도 않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못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물을 빼야하는데, 물을 빼면 우리 천수만 권역 홍성 육지는 새까만 아스팔트로 변합니다. 거기에는 어족자원이 살 수도 없습니다. 어촌계만 7개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는 고기하나 잡을 수도 없고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는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종으로 안 되면 다른 대체 산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이 돼서 관광 사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정해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홍성에는 홍성호가 있습니다. 보령하고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령은 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천수만도 똑같은 천수만이지만, 홍성 경계선까지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홍성만 보호구역입니다. 그것은 아주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풀어야 합니다.

홍성호는 농사짓기위해 농업용수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간월호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물을 그냥 흘리고만 있지, 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로 농사짓기에는 이미 배수펌프량이니, 목리 구역에는 수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대책 필요합니다. 저번에 총리가 가뭄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총리께 하려고 하니 농어촌공사와 농산식품부에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물은 다 썩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하도 가물어서 물이 너무 짭니다. 주민들이 짠 것 넣어 실패하나, 안 넣고 실패하나 마찬가지로 넣었는데, 잘 났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자원 보호 해제, 정책적 대책 필요에 대해 건의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간월호 문제도 물론 준설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물공급대책을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해수유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호구역지정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홍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호와 보령호를 합해서 홍보지구라고 했었는데, 이 두 개도 역시 담수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기초실장님도 계시고,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신데, 이 두 분을 못살게 굴어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정토론자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세로 태안군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로]

반갑습니다. 가세로입니다.

오늘 정말 유의미한 토론을 갖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재영 총장님, 그리고 육근형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해주신 다섯 개 시장군수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쯤에서 1982년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그리고 독일이 왜 와덴해를 환경복원 했을까라는 생각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우리 태안의 경우에는 충남 수역의 45%가 태안입니다. 그리고 갯벌의 점유율이 38%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게 와 닿는 의미, 그리고 시장군수님께 와 닿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갯벌의 가치가 잘 보면, 먼 바다에 비해 20배의 가치가 있고, 농경지에 비해서는 무려 100배의 가치가 있다는 연구조사결과 나왔다. 와덴해를 예로 들자면, 와덴해는 7500평방키로미터의 갯벌을 복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에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로 인해서 관광수입이 10조가 창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요 테마의 하나인 우리 부남호, 그리고 가로림만의 해양 정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요이슈가 되는가 하면, 저는 바로 와덴해의 선행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위성과 절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하고, 우리 충남지사님과 실국장님들께서 우리 부남호 역간척, 그

리고 가로림만 해양 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45%가 우리 충남지역의 태안바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바다를 떼놓으면 태안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이고, 현실적으로도 바다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갯벌복원, 환경복원, 생태복원 그리고 더 나아가 가로림만과 천수만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안군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네덜란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바닷물을 크게 벌려 보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밀함 용역조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의 의견에 따릅니다. 또, 저는 지역주민 설득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마찰이 적진 않지만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 해양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태양은 아시다시피 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의도로부터 출발해서, 웅도, 그리고 저 멀리 끝에 있는 격렬비열도까지 많이 있습니다. 해양실�크로드라는 자체에 걸맞게 우리 섬을 이어갈 수 있는 섬 여행의 기반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우리 군시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갯벌갈매기가 수천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는 서식처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기로 이름난 이곳이 현재 제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격렬비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격렬비열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해의 끝단 섬이고 영해의 기점입니다. 영토의 시대적 지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렬비열도가 북, 서,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격렬비열도만 현재 국가 소유이고, 서와 동은 아직도 민간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의 격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 우리 충청도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독도와 같이 양쪽 끝단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까라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김홍장 시장께서 우리가 돈 모아서 사자고 저한테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을 해주셔야 명실상부한 영토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높은 것이 격렬비열도의 국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은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에서는 사실 바다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양 정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날 서울대학교와 MOU체결 계획에 있습니다. 신해양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나가고, 인공지능을 어디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해안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지역복합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완도,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이 네 가운데가 국가로부터 지정돼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또 서해안에서는 우리 태안이 유일하게 해양지역복합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신해양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일 및 세계 석학들로부터 이론과 경험을 많이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끝 시간이고 3시가 다 되어가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령과 함께 원산도와 안면도가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면 해저터널이 준공되며, 이제 보령과 우리 태안이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보령시장님과 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영]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 안흥항에서 출발해서 격렬비열도를 다녀오는, 카누라고 합니까? 그 요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정도, 걸려서 다녀온 거 같은데, 저런 시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충남 공무원과 격렬비열도를 다녀온 적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은 어쨌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서산과 태안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실�크로드, 스마트해양정원, 해양지역복합단지 잘 성공하길 바랍니다. 격렬비열도는 제가 몇 년 전에 하도 안되면, 우리 충남도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격렬비열도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고 괜히 중국과 마찰이 일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군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복원에 대한, 자연 관리에 대한, 바다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에 관련된 연구를 쪽 해온 학자로서 안심이 되고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충남 서해안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태환경을 복원하자는 것은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하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쓰고 자식들도 쓰고, 자식들의 자식들도 쓰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다는 말 보다 적합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서해안의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생1_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인사말] 최석원

이번 환황해포럼을 준비하는데 주최 측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참석자도 제한하게 되고 발표자도 올 수 없게 되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은 중국에서 투커구어 센터장과 우리나라에서는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투커구어 센터장은 직접 참석을 못하고 화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니 우선 화상을 듣고 또 나중에 토론해주시는 최보근 국장님과 윤용혁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실 테고, 베트남에서 못 오셔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화상으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우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시까지 끝낼 예정이니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투커구어

먼저, 제6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산둥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둥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와 노나라가 위치했던 곳이지요. 산둥은 한때는 제노의 나라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노의 문화는 산둥문화라고 할 수 있고, 산둥문화는 또 제노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둥은 산둥반도라고 불리는데요. 산둥반도는 환해 경제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산둥은 산둥반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한 산둥의 경제 대외개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대외개방도 포함되죠. 문화와 경제, 문화와 관광은 점차 그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특히 전통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포럼은, 문화와 관광을 같이 융합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산둥문화의 대외교류를 통해서 왜 대외개방의 최대화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린 이유가 또 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파와 교류, 그리고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은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유산을 이식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것은 문화와 경제 융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 귀감은 서로 간 문화의 장단점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은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동일 문화권으로서 특히 유교문화권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에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문화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3개국 문화의 매우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3국간에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며 문화 아시아 혹은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3국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국간의 산둥문화 대외교류를 통해 대외개방을 최대화 하려면 우선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산둥문화 교류 이벤트를 개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문화시장을 개척해야겠죠. 즉 산둥이 한국이나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문화교류 플랫폼이나 매개체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외적인 문화적인 홍보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상품의 우수한 품질, 분명한 특색을 갖추고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정에서 연구적인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문화 강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상품성은 산둥지역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산둥만의 특징을 보유한 산둥 스타일을 잘 표현하며 또 광범위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춘 교류문화 브랜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둥에 있는 웨이팡이라는 지역에 연날리기 축제가 있고요. 또 타이산에 등산 대회도 있고, 또 공자가 출생한 곡부에서는 국제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둥문화의 대외교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낮은 적응력이라든가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혹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둥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가고 산둥문화 교류 홍보를 위해서 이점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문화교류 홍보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브랜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풍부한 산둥문화 자원을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브랜드 전략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명인, 유명 기업, 유명 상품 홍보 전략을 통해서 산둥문화가 개방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둥문화의 홍보브랜드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든가 가치를 선택하여 나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속에서 같음을 찾아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전 세계로 산둥문화의 매력과 지역 특색을 홍보하고 또 산둥의 소리를 전하며, 산둥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문화홍보 콘텐츠와 포맷을 혁신하여 개성 있고 독창적인 산둥문화 대외교류 홍보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든가 혹은 하드 마케팅으로 인한 폐단 등을 제거함으로써 문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격상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외적인 문화교류 홍보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으로 폭넓은 산둥문화 교류 이벤트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둥성은 다양한 형식의 대외문화교류 이벤트와 협력사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산둥문화를 보여주고, 산둥문화를 소개·홍보할 것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중국 문화원이나 공자학원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산둥문화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산둥 해외 중국 문화원 연도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일본이나 한국에 더 많은 니산문고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둥문화 고전 번역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문 사회 과학 성과를 출판해내고, 대외문화 서비스 표준화 프로젝트를 실시해 무형 유산, 그리고 무대 예술, 미술, 문화재, 애니메이션, 도서, 산업프로젝트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종합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산둥 출신의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산둥의 관광객, 유학생, 사업가, 공무원 등 산둥문화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 홍보대사를 육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산둥문화 전파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 산둥의 오페라 그리고 산둥의 전통극, 그림자극 그리고 버드나무 공예품, 검은 간토기 등 산둥문화의 특징이 잘 반영된 문화상품을 과감하게 해외로 전파하고 또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해외 순회 전시회나 순회공연도 개최할 것입니다. 또 공자문화상, 공자교육상 등의 평가 이벤트를 확대하고 또 산둥 문화 전파상을 새롭게 제정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산둥은 공자 브랜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공자문화상이나 공자교육상을 많이 수여했습니

다. 공자교육상이나 문화상이 한국 혹은 일본 학자들에게도 많이 수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산둥에는 산둥문화 전파상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산둥문화 대외전파의 개별성이나 적절성을 강화하고 또 전파 대상이 느끼는 바와 이들의 문화적 배경, 종교, 민족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화전파 과정에서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반감이 최대한 줄어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 등 많은 대상 국가들의 국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호교류 방식의 이벤트를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학 이론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이론을 도입하여 산둥문화 교류 전파 프로젝트 베이스를 구축하고 산둥문화의 대외전파, 교류 업무 그리고 홍보 이벤트라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즉 대외교류에 있어서 중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의 문화 시장 개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노문화, 산둥문화의 해외 진출 전략을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계획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은 제한적인데요. 제가 봤을 때 국내외 성공 경험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장 조건이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다 더 공익적인 부분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문화 콘텐츠 사업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둥문화, 제노문화의 해외 진출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상품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노문화의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 시장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문화예술 작품과 전시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둥지역 작품의 인지도와 평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요. 문화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둥성이 IP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상품들, 여러 가지 영상제품이라든지 온라인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의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산둥성의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전시회 속에서 홍보와 교육 입찰 시장에 참여 등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 투자 상담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상품의 대외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문화교류 플랫폼과 매개체를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노문화, 산둥문화를 위한 홍보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훌륭한 문화 콘텐츠 상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혁개방 이후로 저희 산둥성에서도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작품의 계획 그리고 발전의 기반 같은 것들이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께서는 문명 간에 상호교류와 학습 그리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저희 산둥성은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수한 해외문화의 성과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들이 개척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동문화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운영 관리팀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화로운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문화의 해외 진출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업들을 육성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와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내에서 문화와 비즈니스, 홍보, 외교, 금융 등 모든 분야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문화 산업 홍보를 위한 연석회의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상품의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홍보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산동문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산동성 내의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최대한 취합해서 산동문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도 개발함으로써 산동성과 대상 국가 간의 문화 관습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번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동문화를 제대로 번역해서 홍보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자원의 총동원입니다. 문화, 산동문화라는 것은 아주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과 인문 그리고 종교문화, 민간문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혁명전통까지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노문화, 산동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산 문화도 있고요. 타이산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제 문화는 충분히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춘추전국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학설에 대한 발굴과 전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면서 모든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교류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필요한데요.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무역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언론 출판, 관광, 스포츠 또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한 모든 산동문화와 관련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성 위원회부터 각국 정부의 외사 판공실이 함께 협력해서 일관적인 계획 하에서 산동문화의 대외홍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동성 성 내의 대내적인 힘과 대외적인 힘을 함께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동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해외 진출 뿐 아니라 해외 우수 문화의 유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주변 국가들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한 민족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한민족 특유의 문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랑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는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 제노문화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한국의 화랑도를 포함한 해외의 우수한 문화들도 함께 유입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외문화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 제노문화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키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벤트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관광과 교육의 결합입니다.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더 확대·발전시키고 또 해외의 관광객들이 산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노문화와 세계인들이 관광을 하면서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노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또 산동에서 해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끝까지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말을 하고 투커구어 센터장님은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커구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학자, 참석자 그리고 일본의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가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해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황해 문화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황해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는 제가 가능하면 아시아 문화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적극 포함시켜서 일본과 한국, 중국의 문명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에 우리의 지혜를 좀 더 나눠드릴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투커구어 센터장께서는 산동문화 대외교류 추진이라든지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지진호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지진호]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한류원천으로서의 유교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신문, 인터넷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했죠. 3/4분기의 매출액이 67조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즘 BTS 또 블랙핑크 이런 K팝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에 링크가 되고 했는데, 그 경제 파급효과가, BTS의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한 경제 파급효과를 무려 1조 7천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한류의 거센 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한류의 근원이 결국 유교문화가 아닌 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이 넓게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환동해권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화자산이 결국 유교가 아니냐, 이 유교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한류의 바탕으로 활용한 것처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유교의 발전, 유교의 보존과 관광의 발전 이런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쭉 살펴볼 것이고요. 유교문화와 한류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또 한류관광 자원으로서 유교문화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한류 콘텐츠로서의 유교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전망과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시각이든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유교문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600년 이상 동안 우리 사회에 생활 규범이나 가치로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융합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교문화야말로 이런 창조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교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진지함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특히 SNS 발달 같은 것으로 인해 유교식 전통 관례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유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조류로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를 통해서 유교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잘 발현을 시킨다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소통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류의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교문화와 한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문화의 특징은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이런 문화들이 잘 융합된 문화들입니다. 이 융합된 문화가 결국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편성이 거든요. 이 보편성의 핵심이, 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 결국에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교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이라든지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우선한다든지 유교문화의 전통이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한류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BTS의 경제 파급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교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유교문화와 한류의 상관성에 있어 유심히 봐야 하는 될 내용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류 관광자원으로서의 유교문화의 가치. 보통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총칭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관광자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속, 생활습관,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될 때 관광 충족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문화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고, 또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실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실천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이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우리의 문화적 보고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나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이 유교문화에 잘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성과 결부되어서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류 콘텐츠로서의 유교문화의 보존과 활용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교문화는 원 아시아,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콘텐츠로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원 아시아 콘텐츠로서 유교문화 활용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필요성은 정신적 자산 보존이라는 활용뿐만이 아니고 분야별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교문화는 천의 얼굴을 가진 문화로서 사람을 낳고 기른 유구한 역사이기도 합니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원 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 콘텐츠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 아시아 콘텐츠로서의 유교문화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현재적 의의와 실용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교문화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발제하신 투커구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교문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겠고요. 국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황해권 국가의 공통적인 정신 가치인 유교를 통해 대결에서 공존으로, 분할에서 통합으로, 경쟁에서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 넘게 유교문화가 지혜나 가치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국가 간, 지역 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대에 유교문화는 동북아권, 이 환동해권으로 오는 서구 사람들에게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류 콘텐츠로서 활용된 유교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에 대한 것인데, 사실 요즘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이미 한국 정부에서는 신한류 조성 노력의 핵심 사업으로 한스타일 계획을 세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 한식, 한지, 한옥, 국악의 여섯 개 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또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그 핵심 토대는 유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스타일과 같은 문화 콘텐츠 개발의 원동력은 상상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교문화는 결국 상상력의 바다로서 한류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교에는 다양한 인물과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결국 지속가능한 한류의 조건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류 원천으로서의 유교문화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망입니다. 원 아시아 콘텐츠로서 유교문화는 유형적인 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과 철학이나 사건, 일화 등 무형가치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까 중국의 사례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축제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유교문화 콘텐츠는 결국에는 한류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 충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남존여비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때 여류문인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이 충남지역입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잘 해석한다든가 응용을 해서 블랙핑크와 맞는 여류문인들이 읊었던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오전에 동북아 프로세스 포럼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일 또 베트남을 포함해서 환동해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통한 교류 같은 것은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각 정부에서 또는 각 지방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느냐?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교문화가 개인의 가치관,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류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류라는 것은 동시대인들, 우리 팝스타의 이야기, 노래이지만,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청소년들이나 관객들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한류 콘텐츠처럼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존과 활용,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뉴스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영주의 조그마한 대장간에서 나온 호미가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큰 인기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미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만드는 우리 농기구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농기구인데, 이게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된 이유를 분석한 것을 보니 만드는 사람의 경력이 오래됐고, 이분의 태도 같은 것들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미를 만든 사람의 내용이, 그 각도가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한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팔을 활용해서 호미를 사용해도 팔이 아프지 않대요.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됨으로써 히트 상품으로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도 결국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 3국 또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환동해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보고이거든요. 조상들의 지혜의 보고에서 내용들을 잘 캐치해서 한류 콘텐츠 같은 것으로 잘 담아낸다면 유교의 발전과 한류의 문화 또는 관광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미래가 보장되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침 내년에 충청남도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유교,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부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여기 문화체육부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국가적인 차원 또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진호 교수님은 아까 투커구어 센터장이 일반적인 브랜드 문화자산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진호 교수님은 유교 하나를 어떻게 한류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류원천 유교문화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마침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더불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역할 때문에 우리가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자꾸 제한을 하다가 보니 저는 이런 주제가 만들어졌으면 향교나 서원에 있는 분들도 와서 들어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더 듣게 하고 해서 유교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포럼을 한 번 더 해서 많이 참석하게 하여 듣고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발표를 마치고 토론 순서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신 최보근 국장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최보근]

반갑습니다. 문체부의 관광국장입니다. 저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를 보니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교문화라는 한중일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특히 환황해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충남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토론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을 현장에서 하기 참 어렵거든요. 주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관광 내수를 다시 진작하기 위해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숙박할인권, 여행상품 할인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방역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교문화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98년도인가요? 저희가 경북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유교였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유교문화라는 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크게 저희가 했고, 그중에 하나 건설된 것이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안동에 있죠. 그것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국학진흥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국학진흥원을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논산에 개원 하신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문화교류로 발전시켜서 관광교류로까지 이어지게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광국장인데 문화진흥원이 문화부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광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관광 관련된 부서가 처음부터 참여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광국장이기 때문에 충남지역 관광자원이 뭐가 있는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한국관광백선을 저희가 2년마다 뽑는데요. 충남에는 백선 중에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안면도, 서천국립생태원 그다음에 부여, 공주, 대천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도 저희가 오랫동안 정부가 지원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명예 대표 축제가 보령 머드축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천안 황태령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금산인삼축제, 한삼모시축제 또 해미읍성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고,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테마여행 10선을 전국을 열 개 권역으로 나눠서 테마별로 여행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충남권역은 아홉 번째 권역으로 공주 부여 권역이 금강 역사기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다양한 관광 코스라든지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 열기구 투어 상품, 열기구로 금강투어를 하는 상품이 2018년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충남권역도 굉장히 관광 측면에서는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주도나 강원도나 그다음에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 외국 관광객 유치라든지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더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유교문화를 앞으로 기초로 하여 충남권역을 관광을 발전시키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린다면, 일단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한중일 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에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때에 이런 것들

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한중문화장관회담이 있고 한일문화장관회담이 있고 한중일관광장관회의가 있거든요. 이런 회담 협상 테이블에 이런 중요한 유교문화를 기초로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관광으로 승화시킬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진호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초,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역사문화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순수문화예술이 있고 이것을 산업화시키기 위한 것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게 한류로,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걸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문화유산, 순수 어떤 기초문화유산 인문학에서부터 산업화까지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큰 틀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유교문화를 문화산업화시키고, 관광자원화시키는 생태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숙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원]

고맙습니다. 유교문화진흥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충청남도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용혁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윤용혁]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입니다. 주제는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역사문화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의 한 예로서 지교수님께서 유교문화의 예를 들어서 유교문화를 한류와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이고, 또 한중일이 함께 공유한 보편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만, 한류와 연결시킨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동안 착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공유문화 자원 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는 역사문화 공유자원이라는 말이지요. 한중일 연결되는. 기왕에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도 이미 선발주자로서 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한중일을 연결하는 공유자원을 개발하여 이것을 관광으로 연결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확실한 중심점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서 중국 발제자도 있었는데, 중국 발제자는 마침 발표자가 산둥성 출신으로서 발표했는데, 산둥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자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면서 또 교통로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 충청남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가까운 평택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바로 직항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산둥성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공유자원을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잘 착안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한중일을 연결시키는 충남중심의 공유

문화 자원으로 유교문화의 예를 들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 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산동성이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백제가 서기 660년에 망할 때 그 군대가 산동성에서 왔거든요. 1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다를 건너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 군대가 들어왔었는데, 물론 그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의 역사적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충청남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 내포지역의 지자체들, 여섯 분의 시장 군수님들이 해양, 충청남도의 환황해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서천에서부터 당진까지 지역별 시장·군수님들 나오셔서가지고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었는데, 환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군수님들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공유자원 이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한중일을 연결시키는 콘텐츠가 충청남도만이 아니라 서천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고 보령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고, 각 지역별로 고민을 하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환황해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발제하신 가운데 문정인 교수님께서 환황해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담론이 굉장히 큰 담론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론에서 실천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담론에서 실천으로. 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지금 큰 것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들을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작업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기 때문에 충청남도 유교문화도 지역의 중요한 핵심자원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유교문화진흥원도 새로 발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또 환황해 포럼이라는 오늘의 기회에 맞춰서 적용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지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데 역할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윤교수님은 충남이 주체가 되는 공유문화 자원을 개발하자는 말씀을 주로 하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베트남에 계신데, 사회과학한림원에 방문연구원으로 계십니다. 토론해주시겠습니까.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사회과학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토론에 참가하게 돼서 떨어져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 제가 베트남에서 토론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베트남인들이 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

고 한국과의 유교가 어디에서 지금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도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의 침략과 더불어 유교가 전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유교는 베트남이 스스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침략적인 입장에서 전한 것이어서 베트남이 리왕조 시대 때 독립을 비로소 하고 나서부터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치사회에 적용이 되고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대체적으로 15세기 베트남의 레왕조 시기에 부흥을 이루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베트남 왕조인 응우옌 왕조 시대에 다시 한번 붐을 이루다가 베트남이 독립한 후에 베트남이 55년간 전쟁을 겪으며 잠시 유교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야 다시 개혁개방 이후로 여유가 생기고 지금은 유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사람의 인식에서 유학이라는 것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한자를 알아야 유교를 공부할 수 있는데, 한자를 배울 수 있는 베트남 계층은 1920년 이후 지금의 베트남어, 국어라고 하는데 로마자 표음 체계가 전파되기 이전에 한자로써 배울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지금의 베트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인쇄해서 여러 민중들이 계몽운동을 할 때 배우는 것들은 유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들, 문화, 철학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대중 속에서는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처럼 확실한 자신만의 전통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사람도 유교를 문화로 여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초중고학교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역사 쪽에서 조금,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대학과 철학, 한문학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밖에 유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이 베트남 문화를 건설하는 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베트남 문화 속에서 유학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라고 할 때 한국은 제사라고 하면 하나의 유교적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제사는 조상 숭배의 종교, 하나의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창이 돼서 유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생각으로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유교적 유산을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1070년 리왕조 시대 때 공자를 모시는 문묘와 국자감이 세워졌고, 국자감들은 하노이 주변에 하이즈엉성, 흥옌성, 하이퐁, 빈푹, 중국지방, 중국지방의 후예, 여러 가지 문묘와 사당들,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관리를 교육하는 집안의 사당이 유교문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로 얘기할 때 오히려 북쪽이 베트남 유교의 영향이 크고, 남쪽이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유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베트남이 분단되었을 때 남쪽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베트남 유교를 북쪽보다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북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 연구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열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베트남의 교육열이 유교의 과적 영향이라고 신문이나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데, 현지에서는 그것보다는 베트남 자녀에 대해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어서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써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베트남 유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우리와 같은 유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토론하신 것에 대해 투커구어 센터장은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지교수님만 하셔야 되겠네요. 지교수님만 하시고 토론해주신 국장님과 윤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지진호]

유교문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충남지역의 유교문화보다는 영남 북부권의 유교문화를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동이나 영주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충남지역의 유교문화는 백제 시대 때 윤용혁 교수님 계시지만 백제 시대 때 중국 문화의 흐름 같은 것으로 볼 때 유교문화와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통합의 매개체로서 유교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저는 영·호남 또는 영남과 기호 유교문화의 교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합동 세미나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동에 이미 국학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있고요. 이번 충남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한다든가 공동으로 유교를 매개로 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됐을 때 중요한 문화통합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한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한류는 지금 세계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데 사실 한류 콘텐츠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런 것들은 한류 확산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그것을 유교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별도의 기구를 두고, 그 기구라는 것은 유교 한류 문화 개발부서 같은 것을 두어 전문가도 양성하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바탕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국장님께 여쭙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류 정책을 위한 기구가 있느냐 했더니 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와 충남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 한류 발전을, 또는 지속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석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커구어 센터장님이 나가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시다고 하네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커구어]

몇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근 또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주제를 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가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유교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 다양한 면,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 정신문화라는 것이죠. 한국 학자들이 말씀하신 즉 유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담화 체계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특히 전통문화에서 유교문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중국은 많은 반 전통운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5.4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대혁명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유교문화를 골간으로 하는 전통문화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유학 그리고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점점 흐려졌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유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륙에서는 유학 연구에 대한 번영기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교문화는 조금 전에 베트남에 계신 김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보다 훨씬 더 유교를 중시하고 또 향교라든가 다양한 풍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유교국가로 계속 불리고 있는 이유 또한 한국인들이 이런 전통을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교에서는 의와례(예)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유교의 국가로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 제도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시대에 과거제도가 있었죠. 지금의 수능 같은 것입니다. 중국의 과거제는 서방의 문관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중일 3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도 과거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송대 이후 중국의 과거제도는 많은 교재가 있었는데요. 주희가 편찬한 사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제도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문화는 또 행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행위문화란 무엇일까요? 즉 우리의 예술활동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활동, 이러한 것들이 유교의 행위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한국의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유적과 관련된 문화가 또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서원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원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서원을 건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일본 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중국에는 유교문화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자원의 보호, 개발 그리고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역사문화, 유교문화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특히 보존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학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제가 산둥 쑤오장 지역에 갔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지역이실 텐데요. 거기에는 공자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교문화에 대해 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어제 유교와 관련된 학설도 소개했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의 학자 분들도 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부, 관광부가 현재 하나로 통합되어 문화관광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산둥성에는 또 문화관광청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현재 문화와 관광의 통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과 문화의 융합발전 전략을 현재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 측에서 한류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저도 과거에 한류 현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류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통문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현재 애니메이션이나 무용에 어떻게 그것을 결합시키고 있는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방향이 달랐던 것 아닌 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고 유교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유교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국도 다시 유교문화의 열풍이 불어서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이용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통문화로서의 유교나 행위문화로서의 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유교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연구를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플로어에서 질문이라든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도청에서 오신 홍만표 박사를 지명하겠습니다.

[홍만표]

충남도청의 홍만표라고 합니다. 갑자기 지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해서 한중일 내지는 환황해권에 있는 권역의 지역들과 교류 협력을 중시 여기자는 테마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진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남도가 공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만의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유교문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편견이랄까 아니면 일본에서의 유교문화 수용 태도는 여전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봉건주의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서 오야붕이나 고봉 이런 형태로써 통치의 기본 철학, 우리 같이 예나 효 이런 것보다는 충을 중심으로 이어진 문화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오히려 베트남이나 중국하고 한국 유교의 동질성보다는, 동질성하고 일본의 유교를 받아들였던 사상적 배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공통적인 매개보다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이렇게 2자 간 내지는 또 다자간, 한국과 베트남, 이렇게 동아시아 4개국이 연결할 수 있는, 반드시 공통적이 아니더라도 2자 간의 공통분모를 찾고 또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전쟁의 역사 같은 것도 서천의 기벌포라든지 내지는 백제와의 관련성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함께 발굴해나가면 좋은 자산으로서 환황해가 좀 더 넓은 환황해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멘트이고 만약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분 더 말씀을, 역사문화연구원장 박병희 원장님 오셨으니까.

[박병희]

역사문화연구원장 박병희입니다. 오늘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는 왔습니다만, 오늘 보니 최보근 문체부 관광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용혁 교수님의 토론 말씀 그리고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의 김상호 박사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투커구어 산동성의 센터장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최보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문화 연구원에서 유교문화진흥원 설립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이 되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전략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짜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의 의견 자문도 받고 그리고 또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최보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교문화진흥원은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핵

심사항이라는 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광과 문화가 융합된 발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오늘 다시 깨달았는데요. 오늘 발표해주시고 토론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 유교문화진흥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하나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유교문화진흥원이 정말로 잘 된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플랜을 짜는 데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고맙습니다. 지금 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준비단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서 참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자교육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한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유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전혀 없는 상태로 크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충과 효를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평가에서 아주 안 나옵니다. 이런 유교를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왕에 유교문화진흥원을 세우고 하시니 조금 쉬운 유교, 편한 유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교 이런 것들을 지향한 현대적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백범은 70년도 더 전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이야 말로 인과 자비, 사랑하는 마음을 높여 온 인류가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문화가 중요함을 설파하셨습니다. 오늘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투커구어 센터장님과 지진호 교수님 그리고 최보근 국장님, 윤용혁 교수님 또 김성호 연구원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생2_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인사말] 김재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오늘 환황해포럼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마지막은 힘들지만, 주제는 재미있을 것입니다. 많이 와 닿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황해포럼 중에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에 관심이 큼니다. 코로나가 일반 전염병과 다른 게, 그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 인간의 모든 삶과 관련된 전염병입니다.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는 이미 Globalization 되어 있어서, 우리만 잘해서는 방법이 없고, 많은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옛날에는 A/C, B/C를 After COVID, Before COVID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황해포럼이 시의 적절하게 코비드 중점으로 토론할 것입니다. 환황해라고 하면, 한·중·일인데, 원래 일본연사도 참석하려 했는데, 개인 사정 상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환황해이지만 북한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북한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 분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중국·북한과 관련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의료에 관한 위생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입니다.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입니다. 간단히 신영전 교수님을 소개하자면, 현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이며, 주 전공은 예방의학과 보건정책입니다. 오랫동안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부문 자문을 해오고 있고, 대한예방의학회 한반도 건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한 분의 연자입니다. 왕슈안이입니다. 푸단대 의생물학 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간단한 경력은 감염 연구 전문가이시고, 국제 백신연구소에서 장내 감염병 연구를 주로 하셨습니다. 현재는 푸단대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 장내 감염병에 대한 역학 및 예방접종에 대해 연구하시고, 약물평가 중국 식품의약품 중국 국가면역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주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사회문화교류 상임위원이며, 2002년부터 평양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대동강 구역병원,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등 대북보건의료사업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50회 이상 북한 방문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리스트로 오늘 오신 분은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입니다. 경력을 보면,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로 ODA에서 사업에 관여하시고, 주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북한사업, 해외긴급구호 사업 및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종옥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담당하시고, 이전에는 국제백신연구소 역학연구자 로 활동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발표, 신영전 교수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신영전

소개 받은 신영전입니다. 이런 귀한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제 발표량이 많기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참조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집에 있기에 대부분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하고 강조할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안보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보라는 것은 첨단무기나 핵무기였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핵무기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안보패러다임은 과거의 적대적 무기중심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안보와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작금의 지금의 코로나 일부 팬데믹은 튼튼한 공중보건 체계 없이는 경제사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유행은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유행은 한 국가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문대통령 연설 끝나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에서는 피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실은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황해의 서해는 자칫하면 파괴와 전쟁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임을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유행에 있어 각국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4500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1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사건의 제일 시작부분에 있었고, 북한 역시도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기에 가장 빨리 1월 22일 국경을 폐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재 북한의 특수성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로, 제재대상이 되지도 않는 인도지원이나 코로나의 국제적 협력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기되어 열릴지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잘 선방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까지의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황이 1단계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지점으로 전 세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응 노력이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문제점들도 많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재난 속에서 기존의 국제협력체제가 어떤 면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마스크가 부족한 나라에 보내고 싶어도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여러 나라들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 힘들게 지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전문적인 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완해야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라는 의미 속에는 마치 반지처럼 링이라는 개념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요하게도 북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북한과 관련된 보건 의료 참여 했던 경험에 삼아서 환황해 다국적 협력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한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나 약재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비형 감염관련입니다. 북한에는 굉장히 비형 감염이 많은데, 370만 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홍역 유행일 때에도, 1600만 명 정도 국제협력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본 네온백신도

마찬가지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홍역과 풍진예방접종을 진행하던 중에 250만 명이 진행된 다음에, 나머지 300만 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을 폐쇄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결핵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감염병입니다. 가장 오래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글로벌 펀드에서 2017년까지 약 7년간 약 1억 3백만 달러를 들여서 북한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결핵이 가장 많은 30개 나라에 속합니다. 또 특별히 다재 내성결핵이 많은 30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염병과 관련된 약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결핵사업과 말라리아 사업을 책임지던 글로벌 펀드가 설명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이유를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동한다고 의심합니다. 말라리아는 현재 남한에서 제일 호발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DMZ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북이 공동방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협력을 중단하면서, 남쪽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서, 다시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과 돼지열병도 휴전선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한만 열심히 방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남북한 협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8년 9월 19일과 2018년 10월 14일 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부문에서 양 정상은 약속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감염병 문제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보건의료부문의 유일한 정상 간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정상 간 협의에서 진행하려던 타미플루 지원 사업이 2019년 1월, 유엔사가 경제 제재를 이유로 트럭이 북한으로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남한과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의약품 지원은 경제적 제재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단된 것은 다시 복귀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황해권 공중보건 위생보건부문 협력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동안 문제라고 요약되는 것은 교류협력의 잦은 단절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매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지원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 간 상시적인 정보교환이 못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 상시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했는데, 여전히 구축문제가 더딘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격리와 봉쇄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문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경제 봉쇄를 풀어야 하는 단계에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것은 공중보건분야가 한 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있거나 특정 민간단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에 최근 정부에게 다자협력체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다자간 협의 틀을 건 인하고자 보건의료를 갖고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매년 600만 명의 중국관광객들이 코로나 사태로 못 오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일본 관광객도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관계가 좋았을 때, 약 1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야심 있게 추진 하였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산업이 현재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무역과 산업이 공중보건과 검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또는 나라 간 협력체제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인접국 나라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희망적인 이야기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두 가지 걸쳐, 울란바토르에서 결핵전문가가 모였습니다. 한국,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이 참여했고, 두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보건장관급되는 사람들이 한 번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모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협력관계는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간 협정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서독 통일 때에도 가장 먼저 체결되었던 것도 보건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북 간이 정치적 사유로 흔들리지 않도록, 적어도 보건의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일, 한·일 관계에서도 보건의료 문제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환황해 공중보건 위생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로 고생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 황사로 인한 고통문제는, 한국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계속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쓰레기나 건설폐기물 문제들도 공동대처가 필요합니다. 산림병충해도 인접국가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환황해권 감염병 협력체계를 좀 더 확장하여 저는 공중보건협력 체계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은 유니세프가 아닌 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책임지는 아세프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적어도, 아시아 어린이들은 아시아가 책임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중국, 일본, 북한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브룬틀란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생물로 가득 찬 하나의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가 마지막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20-21-22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위생과 관련해서 각 국가들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 조심스러운 것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문제들을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정보 등의 문제들이 민주적으로 사용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장치들도 이 강대국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기존 국제사회협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다 견고한 국제협력 없이는 경제성장도 더 나아가 인류의 성장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존 적대적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견고한 지역공중보건위생체계를 구축하는 전 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환황해권 국가들, 특히 한·중·일 국가들이 성공적인 선례들을 남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

상당히 광범위함에도 잘 요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토론자와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왕슈안이/엄주현/김순애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코멘트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접촉이 어려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님 나오셨죠?

[엄주현]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단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엄주현입니다. 갑자기 토론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그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얼마나 두려운 질병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전염병인 듯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다양한 전염성 질환들이 유행했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라고 회자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세기적 전염병 시대를 맞으며 대북 보건의로 교류협력을 했던 활동가로서 또한 북한을 공부한 연구자로서 정말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신영전 교수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기라도 하듯이 ‘전염성 질병의 교류협력’을 조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보건 당국 간에는 실무협약과 인플루엔자 정보에 대한 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문제재기로 북송하지 못했고,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No-Deal 이후 남북 관계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엔사라고는 하지만 결국 남북 모두 미군과 미국 정상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2020년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남북축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19년 2월 이후 북이 남측 당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모토’가 이어져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이 일부라도 수행되었다면 세계적 전염성 질환인 코로나 19의 대응을 공동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공동 대응의 역사는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저는 2년 전 남북 정상이 공동 선언문에 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진일보를 넘어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북측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의 평가와 성과를 담아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했고 5년 뒤인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5년마다 당 대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진 것은 1956년 3차 당 대회 이후 4차 당 대회인 1961년 때 외에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규정에 따르는 통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 대회뿐 아니라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당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회의, 정치국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국가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북 관계에서도 정전체계의 해체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실행하려고 했고 그 차원의 움직임이 2018년 남북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이 2012년 집권 뒤 첫 일성이었던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실현이고 2016년 7차 당 대회 때 기본 전선으로 밝힌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염성 질환의 공유와 협력은 적대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넘어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였던 때에도 외국 단체에게 손을 벌리는 한이 있어도 남측 민간단체나 당국에게는 적극적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남북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2019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측의 정상국가로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 선진 보건의로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가 개선되면 다시 이러한 움직임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11월 중에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면서 조중 교류협력의 본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평양과 금강산에 한하여 먼저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 특히 북측은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중개인 역할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와 향후 전망을 예의주시 해야겠으나 보건의료와 관련한 계획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평균수명, 전염병예방률 등보건지표세계수준목표.
- 2)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 - 위생방역기관 현대화.
- 3) 의사담당구역제 강화.
- 4) 의료봉사질 개선- 선진 진단 및 치료 수용.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완비. 구급의료봉사 강화.
- 5) 의학과과학기술 발전 - 최신의학과과학기술을 적극 수용.
- 6)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 현대화, 원만히 생산보장.
- 7) 군인민병원 현대화. 리인민병원, 진료소에 대한 물질적 보장 적극 추진.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한 보건의료 계획이 전염성 질환 대처와 예방의학 및 위생방역체계의 재구축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19의 공동대응을 통해 동아시아의 공생공영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되길 희망합니다.

북쪽까지 포함해 동아시아의 공동대응 행동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길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김재일]

전체 토론은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소통 방법으로, 현재에는 다이렉트가 힘들기에, 치사하지만, 힘들지만, 할 수없이 중국을 통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할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부장님, 인사하시고 코멘트와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순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순애입니다. 저희 재단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기에 간략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줄이면 Kofih라고 부릅니다. 이종욱 박사님이 제 6대 WTO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총회준비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기념, 펀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보건의료재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종욱 박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이종욱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 인력을 키우는 인력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ODA 프로그램을 다양한 개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현재 우리는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게 없이는 뭔가가 어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WHO가 글로벌 팬데믹 선언한 것이 2020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선진국 포함 110여 개국에서 약 11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 거의 확진자가 40배 늘었습니다. 4400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1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침범할 정도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가 보건안보, Global Security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군사 용어로 통용되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 삶에 연관이 되는 보건문제가 바로 안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도저히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라고 하는 이슈가 당연히 보건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컨대, 식량안보라고도 합니다. 먹을 것들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영향도 주고 그래서 멀티섹터가 같이 공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당연히 개발도상국에도 문제가 됐지만,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가 이런 상황에서 잘 헤쳐 나가고 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가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역할일 것 같습니다. 또 WHO가 2005년에 만들었던 IHR이 있습니다. 국제보건협약인데, 이 협약이 사실은 감염병을 위주로 해서 각 나라가 어떤 역량을 만들어내서, 이런 문제가 도래했을 때, 잘 대처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발생 이후 모든 문제들이 연관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공조 또한 필요하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도 같이 보건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고, 대처해나가는지, 준비해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협력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건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보건문제 임상적인 것, 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행정, 예방과 감시하는 다방향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일본·몽골·일본, 환황해 유역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작은 병균이 퍼져도 이 국가들은 밀접하기에 금방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점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 부족했는지, 공유의 장들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일]

오늘 모든 연사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왕슈안이 연결 됐나요?
왕슈안이 연구위원님. 시작해주세요.

[왕슈안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동시통역이 돼 있으므로, 중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신영전 박사님의 발표내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굉장히 훌륭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공공보건위생의 협력 주제로 하셨습니다. 국가 간 전 세계적인 공공보건 위생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이형

독감부터 오늘날 코로나까지 전염병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대유행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방역이 전 세계에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1960-1970년대에 전 세계 공동노력으로 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소멸시킨 것처럼, 우리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앞 단계에서, 사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로 정보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과학기술, 그리고 SNS에서 정보가 빨리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신도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 만에 DNA의 서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서열을 받아야만,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현재 100여 가지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백신은 벌써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신의 3상연구가 성공해서 입증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 백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주제가 시의적절합니다. 코로나에 직면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국제적인 정치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제에도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좀 테스트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영향에 미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제가 원래 코로나 임상실험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WHO의 리더 하에서 효과적으로 백신사용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가 잘 억제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앱 문제로 인해 영어나 중국어에 발표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 아쉽습니다. 그래서 회의 주최 측에서 사전에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통해 간단한 토론이 가능하여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

토론 감사합니다.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멘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어로 하면 사실 상 모두가 힘드니, 제가 코멘트 하고, 왕슈안이의 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왕슈안이 위원님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사스와 코로나 관련 이야기했다. 사스와 코로나는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백신개발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백신개발은 당연히 WHO와 잘 협력해서 전 인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안했지만, WHO와 잘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환황해권에서 공중보건 코로나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책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과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저쪽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 사람 무시하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제사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대처법이 다릅니다.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중국,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대책을 내었겠습니까? 그 베이스에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건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 보건의료체계 등이 다 망라되어 그러한 결과로 현재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군위유신. 군위신강. 유교적인 체계는 체계에

관한 것이고, 조직에 대한 복종입니다. 물론 유교적인 것 중에 허례의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 동북아권은 기본적인 우리 생활 안에, 그런 전통이 숨어있습니다. 옛날에 금불이 한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룹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의 행동은 좋은 의미의 순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체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유럽은 또 다릅니다. 유럽은 유럽 안에서도 독일도 달랐습니다. 독일은 보건체계 내에서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던 의료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의 의료체계가 코로나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각 나라가 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공중보건을 협력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과 환황해이지만, 북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혹시 여기 지역,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전 교수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전]

네. 신영전입니다. 플로어에 질문이 있을지 모르고, 제게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보시는 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그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긴박하고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백신개발이 되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관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바람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또 예전 우리의 초기로 돌아갔을 때, 마스크 사태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강대국 중심으로 백신동맹을 구축하여,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주로 강대국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강대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초기상황에서 우리가 국외반출 금지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사실 저개발 국가들은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백신도 똑같은 코스를 밟아야 할 것인가, 그래도 최소한 추가적 조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준비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환황해포럼에 감사드리면서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황해 포럼이 그냥 오늘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끝나면서 ‘환황해 선언’이나 ‘결의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보다 분명한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논의들이 교육도 교류도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환황해 포럼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고민해봤더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황해 국가들 간에 보건의료 협력에 아주 상설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따라서 우리도 노력할 것이고, 각국 정부들은 그러한 상설 조직을 위해 움직여주길 바란다는 선언 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강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 혼란 없이, 질서 있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그래야 함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을 마치면서, 생산적인 결과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한 장, 방역을 위한 아주 사소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ODA 틀에서도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되고, 그분들이 공식적인 루트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포럼, 그러한 자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개발이후에도, 다른 백신들도, 이전 백신들도 비싸거나 가격이 높아 취약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떤 가격으로, 잘사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질서 있는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주현]

2019년 2월 하노이 No-Deal 이후 북한이 대남입장에 대해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당 창건 기념대회) 개최를 하면서, 남쪽사람들한테도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곧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진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이라도 북쪽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도 포함해서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충남이 주도하던 누군가는 분명히 주최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금방 나올 것 같지 않기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18년에 맺었던 당국 간 합의에 전염성 질환 조항이 있고, 하지만 전염성 질환은 군사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차원에서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민간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영전 교수님이 계신, 예방의학회가 남한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특히나 코로나는 전염성질환이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교류협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충남이 주도하던, 아니면 예방의학회가 주도하던, 민간이나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생각으로 움직여야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주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충남이 해도 되고, 아니면 예방의학회가 해도 되고, 빨리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전]

네. 여기 신문기자가 계시면, 보도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엄주현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남한에서도 예방의학이 인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었기에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만

들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중국, 몽골, 일본까지 포함하는 보건협력 구상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각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각론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엄주현 처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 사이에 관광재개 협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중국, 북한, 한국이 모여 검역이나 관광 재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문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협력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남측이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니, 한국과 중국 간에라도 보다 긴밀한 전문가 간 검역과 관광과 물자교류 전문가 네트워크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중국, 북한, 일본까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이미 움직임이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간 관광객들과 물자이동을 위한 검역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일]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방의학 인기 엄청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원장으로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관리학도 엄청 인기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책하는 곳 전부 의료관리학입니다. 민간 주도가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것은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의료교류가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학술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중국을 바탕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상당히 진전되는 건데, 문제는 북한하고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황해에 북한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말씀드리면, 저도 의사이지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현재 전문가들은 백신은, 코로나는 결국 인플루엔자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백신개발은 될 것이지만, 대신 한 방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맞을 수도 있고, 두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예방에 도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타미플루처럼 기가 막힌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특성 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이 지금 한 160억 개를 만든다고 내년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골고루 맞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160억 개 만들면, 160억 명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걱정을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부 같이 전 국민 코로나 환자 무상치료입니다. 전 세계 전무합니다. 저는 이것도 정부에서 아마 취약계층에 대해 분명히 신경쓸 것입니다.

[신영진]

충남에 대한 감사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15년간 북한 다니면서, 남북교류 관련 충남이 여러 가지 구상을 이미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 상, 북한의 황해남도나 황해북도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충남은 휴전선을 경계로 접는다고 치면, 평양 위쪽에 있는 평안남도나 북도를 타겟팅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래도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물자교환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에, 북한 전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안 남도와 북도를 자매결연조직 지역으로 설정해서,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은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크기에 상당기간 공을 들여야 합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연락체계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일]

NLL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주현]

정세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단체의 경우, 2019년에 아보다비에서 세계 약사총회를 했을 때, 북한 보건성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교류의 경우, 유엔제제와 상관없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이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국제회의에는 적극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정정도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남을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간다면, 내년의 국제회의를 고정하고, 민간단체와 예방의학회가 조인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포럼이 끝나면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일]

아까 독일이야기 했는데, 결국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기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학회에서, 여러 적대적 관계일지라도, 학회에서는 의사들끼리 병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리가 더 그것은 그야말로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들과 학회들, 보건의로 쪽은 비교적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플로어에 질문 돌립니다.

[플로어]: 박혜린(영종총연연합회 국장, 영종녹색봉사단 부단장, 영종시민뉴스 YCN 기자)

소속 영종총연연합회 국장입니다. 영종녹색봉사단 부단장, 영종시민뉴스 YCN 박혜린 기자입니다.

일단은 공중보건 위생 협력방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첫걸음을 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원과 종합병원을 거기에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일]

원래 인천은 특별구역으로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제병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병원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의료법에 걸려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 두 개의 대학병원이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지역이면 종합병원 이상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최근까지도 두 개의 대학병원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오늘 이 이슈와 약

간 다르지만, 인천지역은 그렇습니다. 감염병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디컬센터밖에 없습니다. 메르스 때,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런 무서운 감염병에 대한 집단치료와 대응예방 역학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다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부권에 하나, 그 다음에 영남권에 하나를 선정했고, 호남권에는 1년 반 전에 조선대병원이 감염병원을 했습니다. 현재 감염병원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염병 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은 그 다음 현재정부에서 다음 해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지역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예컨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현재에는 비교적 공공의료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역 의료원에서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세가 있고, 전문적으로 치료받으려면, 거점 전문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감염병 발생환자를 컨트롤할 수 있고, 치료 체계가 잘 돼있다고 현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영전]

코로나 사태에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Big-Five 병원이 별로 신문에 나오지 않은 반면에, 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시립병원 의료원이 컸습니다. 현재 민간 병원은 급한 환자 중심으로 순환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는 없을 때, 비워둬야 해서 민간에서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컨대, DMZ로드, 인도주의 로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성을 통해 병원을 지어 남북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 남포가 인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원이 있어서 인천 쪽 병원이나 의료체계는, 북한의 남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거기가 검역이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인천검역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필요성이 아주 좋은 거점이 될 것입니다. 남포 검역전문가와 인천 검역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만나는, 물꼬를 트는 작업이 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민간병원이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중부권은 민간병원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도 민간대학병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민간과 공공이 좋은 의미로 섞여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민간도 이해타산보다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중국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싶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중국뿐 아니라, 북한전문가, 일본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 건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전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리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패널리스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환황해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보도 자료

1. 기사 리스트

순서	날짜	매체	제목
1	2020.10.21.	연합뉴스	환황해 평화·공생·번영을 위해'...29일 예산서 환황해포럼
2	2020.10.21.	한겨레	“평화·번영·공생의 길을 찾다”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막
3	2020.10.21.	뉴스1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 개최...평화·번영·공생 방안 모색
4	2020.10.21.	국민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황해권 미래는...충남도 '환황해 포럼' 연다
5	2020.10.21.	서울경제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6	2020.10.21.	대전일보	한반도 비릇 환황해지역 평화·번영·공생의 길 찾는다
7	2020.10.21.	대전투데이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최
8	2020.10.21.	충남일보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최
9	2020.10.21.	충청일보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0	2020.10.21.	충청투데이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1	2020.10.21.	충청타임즈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2	2020.10.21.	충청매일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 개최
13	2020.10.21.	당진신문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4	2020.10.21.	아시아투데이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평화·번영·공생 '길' 모색
15	2020.10.21.	아주경제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6	2020.10.21.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7	2020.10.21.	뉴스프리존	충남도, 전세계 전문가와 '환황해 길' 모색
18	2020.10.21.	뉴스랩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19	2020.10.21.	뉴스티앤티	충남도, 환황해시대 지방정부...평화·번영·공생 함께 모색
20	2020.10.21.	내외뉴스통신	충남도, 환황해 포럼 개최
21	2020.10.21.	sbn뉴스	【시사】'환황해 평화·번영·공생의길 찾는다' 29일 환황해포럼 개최
22	2020.10.21.	신아일보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최...평화·번영·공생 '길' 모색
23	2020.10.21.	프라임경제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최...국내·외 전문가 온·오프라인 참여
24	2020.10.21.	비욘드포스트	충청남도, 환황해 지역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25	2020.10.21.	중도일보	충남도, 환황해권 평화·번영·공생의 길 찾는다
26	2020.10.21.	데일리경제	충청남도, 환황해 지역 평화·번영·공생 '포럼' 개최
27	2020.10.21.	쿠키뉴스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28	2020.10.21.	금강일보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29	2020.10.21.	불교공뉴스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30	2020.10.21.	동양일보	충남도 29일 예산서 환황해포럼
31	2020.10.22.	국민일보	코로나 이후 환황해권 평화·공생의 길... 충남이 찾는다
32	2020.10.22.	블록체인밸리	충청남도, 환황해 지역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33	2020.10.22.	월간<CEO&>	충청남도, 환황해 지역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34	2020.10.29.	연합뉴스	문정인 "중국 겨냥 미국동맹 참여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에 설것"
35	2020.10.29.	뉴시스	양승조 충남지사, 중·일·북에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확대하자'
36	2020.10.29.	뉴스1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국가 상생 위해 구체적 노력·실천"
37	2020.10.29.	대전투데이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38	2020.10.29.	충청뉴스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 규모 넓혀가자"
39	2020.10.29.	충남일보	양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40	2020.10.29.	충청일보	신북방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고 뜬다
41	2020.10.29.	충청일보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42	2020.10.29.	중부매일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43	2020.10.29.	아주경제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44	2020.10.29.	아시아뉴스통신	양승조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제6회 환황해포럼

45	2020.10.29.	뉴스프리존	양승조 충남지사, "북·남으로 환황해 평화 규모 넓히자"
46	2020.10.29.	신아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47	2020.10.29.	내외뉴스통신	양승조 지사, 제6회 환황해 포럼 개최사
48	2020.10.30.	중앙일보	문정인 "中 겨누 美동맹 참여 땀, 황해가 전쟁바다 될 수 있다"
49	2020.10.30.	세계일보	"환황해 평화번영 협력국가 한중일에서 북한 몽골 신북방 신남방으로 넓히자"
50	2020.10.30.	한국경제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충남도, 제 6회 환황해포럼
51	2020.10.30.	이데일리	문정인 "美반중동맹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 될 것…황해는 전쟁바다"
52	2020.10.30.	서울경제	문정인 "美동맹 참여하면 중국이 적대…황해는 전쟁의 바다"
53	2020.10.30.	대전일보	"한·중·일을 넘어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 넓히자"
54	2020.10.30.	충청투데이	충남도, 신북방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 튼다
55	2020.10.30.	충청투데이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56	2020.10.30.	충청리뷰	양승조 충남지사, 29일 '제6회 환황해 포럼'서 개회사 통해 제안
57	2020.10.30.	충청매일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58	2020.10.30.	충청타임즈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59	2020.10.30.	당진신문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60	2020.10.30.	당진신문	신북방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 튼다
61	2020.10.30.	천지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제안
62	2020.10.30.	금강일보	충남도, 신북방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 튼다
63	2020.10.30.	금강일보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한·중·일 넘어서야"
64	2020.10.30.	쿠키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65	2020.10.30.	브레이크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양승조 지사, 29일 '제6회 환황해 포럼'서 제안
66	2020.10.31.	LG헬로비전	충남도 '환황해 포럼' 개최…황해 평화·공생 논의
67	2020.11.07.	국제뉴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 제시하며 성공적 마무리
68	2020.11.07.	블로그뉴스	제6회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 제시하며 성공적 마무리
69	2020.11.07.	한국강사신문	제6회 환황해포럼, 총 3가지 세션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 제시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20.10.21
제목	'환황해 평화·공생·번영을 위해'...29일 예산서 환황해포럼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068300063?input=1195m

'환황해 평화·공생·번영을 위해'...29일 예산서 환황해포럼

평화 프로세스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 코로나19 대응 협력 논의



지난해 열린 환황해포럼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움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와 번영, 공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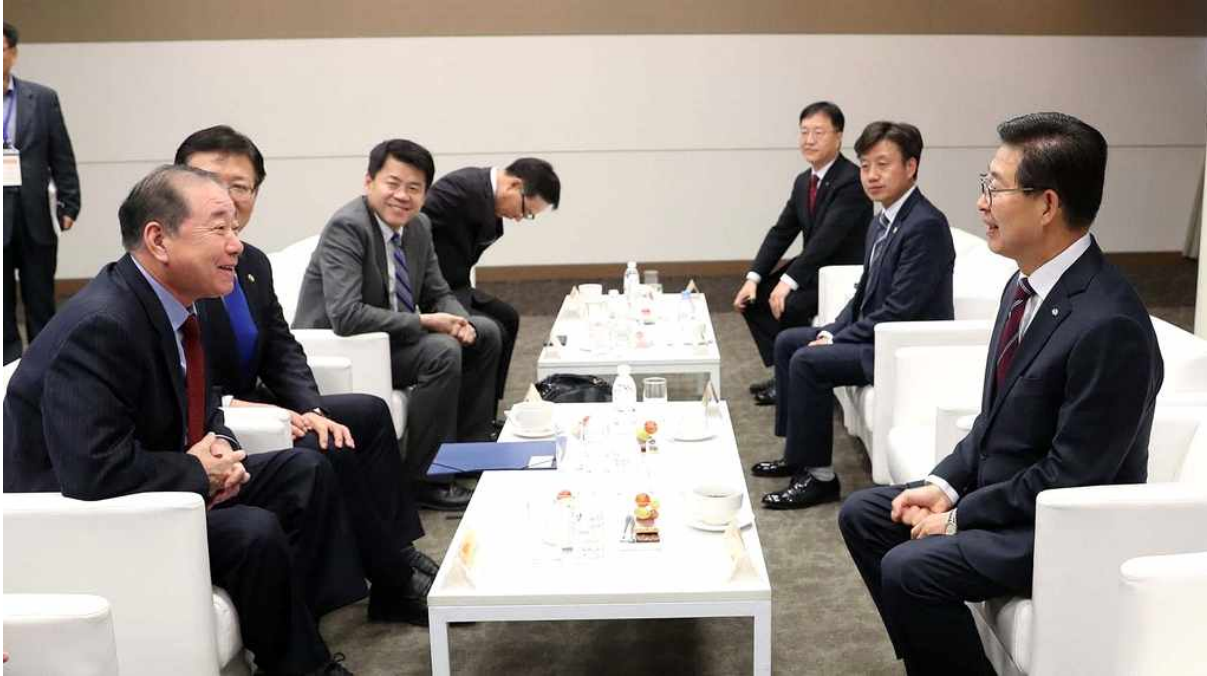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양승조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현장 행사장에 참석하고,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제6회 환황해포럼

포럼은 양승조 지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이 마련됐다.

이어서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서는 문정인 특보가 좌장을 맡아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환황해포럼 참석한 문정인 특보
[충남도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본 세션은 고령화·저출산, 해양 생태복원, 관광 활성화, 공중보건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공중보건 토론에는 한·중·일 의료진이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방역과 공중보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hwanhuanghaeforum.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여는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구축 문제, 저출산·고령화 극복, 관광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Yellow Sea Forum

2020.10.29. 충남 예산군 스포러스 리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행 사 명	제6회 환황해포럼
일시 및 장소	2020.10.29.(목), 충청남도 예산군 스포러스 리솜
대 주 제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
세 선 주 제	평화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방안 변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공생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참 석 자	정부기관, 주한대사, 국회의원, 환황해권 지자체장, 각계 전문가 등
주최, 주관	충청남도, (사)한반도평화포럼
후 원	외교부, 통일부
홈 페이지	환황해포럼.kr 《온라인 실시간 시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QR코드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
평화포럼

후원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제6회 환황해포럼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1 10:54 송고

출처	한겨레
일자	2020.10.21
제목	“평화·번영·공생의 길을 찾다”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막
링크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66617.html

“평화·번영·공생의 길을 찾다” 충남도 환황해포럼 개막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열린 제5회 환황해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충남에서 열린다. 충남도와 한반도평화포럼은 29일 충남 예산 스포라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양승조 지사의 개회사와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문정인 특보가 좌장을 맡아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본세션은 △번영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번영2: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공생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공생2: 환황해 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다.

저출산·고령화 세션은 서형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이 발제한다. 토론은 가네코 다쓰야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저출산고령화 고용위원회 위원장, 니나모라르보울 주한덴마크대사관 참사관, 신혜종 순천향대 교수가 온·오프라인으로 출연한다.

환황해 주변 지방정부들이 협력·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6번째 환황해포럼이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다.

환황해 주변 지방정부들이 협력·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6번째 환황해포럼이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다.

해양 생태복원 세션은 국가물관리위원장인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가 토론한다.

관광 활성화 세션은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투커구어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이 온라인으로 발제한다.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지진호 건양대 교수,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토론하고, 이상호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객원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공중보건·위생 협력세션은 김재일 단국대병원 원장이 좌장,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왕슈안이 중국 푸단대 의과대 연구위원, 미츠코세기 일본 메이카이대 의과대 교수,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동북아 협력과제 등을 공유한다.

충남도는 “올해 환황해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아 환황해의 지방정부들이 지역 평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번영과 관광 및 방역 협력을 통한 공존·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환황해포럼은 공식 누리집(www.환황해포럼.kr)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66617.html#csidx3653724f00bea239f2d0f6199370e41>

출처	뉴스1
일자	2020.10.21
제목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 개최...평화·번영·공생 방안 모색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094302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 개최...평화·번영·공생 방안 모색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 토론 진행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Yellow Sea Forum
2020.10.29. 충남 예산군 스포라스 리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행사명	제6회 환황해포럼
일시 및 장소	2020.10.29.(목), 충청남도 예산군 스포라스 리솜
대주제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
세션주제	평화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방안 번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공생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참석자	정부기관, 주한대사, 국회의원, 환황해권 지자체장, 각계 전문가 등
주최, 주관	충청남도, (사)한반도평화포럼
후원	외교부, 통일부
홈페이지	환황해포럼.kr <<온라인 실시간 시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QR코드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후원 | news1

제6회 환황해포럼 홍보물 © 뉴스1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와 번영, 공생 방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와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연다.

도는 오는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양승조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즈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고,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 개회사와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진다.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본 세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여는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번영, 관광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황해포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댓글달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gmlwh101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국민일보
일자	2020.10.21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황해권 미래는…충남도 ‘환황해 포럼’ 연다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32914&code=61122018&cp=nv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황해권 미래는…충남도 ‘환황해 포럼’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황해 지역의 평화·공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충남도는 29일 예산군 스포러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로 정해졌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포럼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중·일 및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의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문정인 특보가 좌장을 맡으며 고봉준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위샤오화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 연구원, 니시노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본세션은 번영1(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번영2(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공생1(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공생2(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해 논의하는 번영 첫 세션은 서형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이 발제한다.

번영 두 번째 세션은 국·내·외 해양환경 주요 정책 동향과 미래 해양 환경 이슈 및 전망을 살피고, 갯벌 복원과 생태관광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다룬다.

이어 공생 첫 번째 세션은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생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동북아 지역의 방역·보건 협력 움직임 및 협력 과제 등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로는 충남관광사진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전, 남북 차(茶) 문화 체험 등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환황해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댓글달기 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환황해포럼은 환황해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며 “올해는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의 평화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번영, 관광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32914&code=61122018&cp=nv>

출처	서울경제
일자	2020.10.21
제목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7TIX26C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충남도, 29일 '환황해포럼' 개최...국내·외 전문가 온·오프라인 참여 평화 프로세스 구축·저출산 고령화 대응·공중보건 협력 등 논의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와 번영, 공생 방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와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편다.

도는 오는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고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 개회사와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진다.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문정인 특보가 좌장을 맡고 고봉준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은 위샤오화(중국)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 연구원, 니시노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의 토론이 펼쳐진다.

본세션은 번영1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번영2 :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공생1 :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공생2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로 연다.

번영 첫 세션은 서형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이 발제를 한다.

토론은 가네코 다쓰야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저출산고령화 고용위원회 위원장과 니나모라르보울 주한덴마크대사관 참사관, 신혜종 순천향대 교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번영 두 번째 세션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좌장을,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말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여한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외 해양환경 주요 정책 동향과 미래 해양 환경 이슈 및 전망을 살피고, 갯벌 복원과 생태관광 등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공생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투커구어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이 온라인으로 발제한다.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와 지진호 건양대 교수,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고, 이상호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객원연구원이 온라인으로 토론을 편다.

공생 두 번째 세션에는 김재일 단국대병원 원장,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왕슈안이 중국 푸단대 의과대 연구위원, 미츠코세기 일본 메이카이대 의과대 교수,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 등이 좌장과 발제,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동북아 지역 방역·보건 협력 움직임, 협력 과제 등을 공유한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충남관광사진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진전, 남북 차(茶) 문화 체험 등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환황해포럼은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고, 환황해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목표로 매년 개최중”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여는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번영’, 관광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출처	파이낸셜뉴스
일자	2020.10.21
제목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010210936392367

충남도, 환황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29일 ‘환황해포럼’ 개최…국내·외 전문가 온·오프라인 참여

평화 프로세스 구축·저출산 고령화 대응·공중보건 협력 등 논의



충남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청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를 비롯한 환황해 지역 평화와 번영, 공생 방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와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설정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고,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환황해포럼 포스터

개회식에서는 양 지사 개회사와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진다.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문정인 특보가 좌장을 맡고, 고봉준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은 위샤오화(중국)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 연구원, 니시노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의 토론이 펼쳐진다.

본세션은 △번영1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번영2 :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공생1 :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공생2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로 연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황해포럼은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고, 환황해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매년 개최 중”이라며 “올해 포럼에서는 환황해 지역 ‘평화’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번영’, 관광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황해포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 실시간 시청하며 댓글달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20.10.29
제목	문정인 "중국 겨냥 미국동맹 참여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에 설것"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131700063?input=1195m

문정인 "중국 겨냥 미국동맹 참여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에 설것"

"한국에 사드·탄도미사일 배치하면 중국도 맞대응...황해 전쟁의 바다 돼"
미중 갈등 한반도 위기 고조...한중일 군비 경쟁도 평화 어렵게 해
문 특보 환황해포럼서 평화프로세스 구축 방안 논의



환황해포럼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양영석 기자]

(예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9일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특보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를 향해 동평 미사일을 겨누고, 서해 항로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도 자주 침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가 온다면 그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황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답보 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황해포럼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양영석 기자]

그는 "북한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인데,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영변 모든 핵실험 시설과 심지어 연구소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카드를 다 보였지만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다 포기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그대로인데 지금 미중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환황해 평화는 정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이 발표한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확보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군비 경쟁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문 특보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동북아 군비 전쟁이 바로 촉발된다"며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 평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한도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중·일 지방정부·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출처	뉴스시스
일자	2020.10.29
제목	양승조 충남지사, 중·일·북에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확대하자'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9_0001215337&cID=10807&pID=10800

양승조 충남지사, 중·일·북에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확대하자'



[홍성=뉴스시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6회 환황해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성=뉴스시스] 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을 포함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양 지사는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솜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을 넘어 몽골과 북한, 신북방과 신남방 국가로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연 이날 포럼에서 양 지사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며,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세계인의 삶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제6회 환황해포럼

양 지사는 이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우리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지금, 환황해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20%가 몰려 있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환황해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그러나 환황해 지역은 “역사문제, 남북문제, 영토분쟁 등 지난 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했고, 낡은 질서를 벗어나지도 못했다”며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의 꿈의 크기를 한 단계 더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며 환황해 평화·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히자고 강조했다.



[홍성=뉴스시스] 29일 예산 스피라스리솜에서 제6회 환황해포럼이 열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0.10.29 photo@newsis.com

환황해 평화·번영 확장에는 충남이 앞장서겠다며 “환황해포럼을 중심으로, 각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중심도시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환황해의 중심으로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충청남도가 환황해의 새로운 도약을 앞장서 이끌어 가겠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생을 위한 협력을 환황해에서 꽃피우자”고 덧붙였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양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포럼 본세션 ‘번영’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생’ 분야에서는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출처	뉴스1
일자	2020.10.29
제목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국가 상생 위해 구체적 노력·실천"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102942

양승조 충남지사 "환황해국가 상생 위해 구체적 노력·실천"

제6회 환황해포럼 열어…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 토론



충남도는 29일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양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했다. © 뉴스1

충남도가 한·중·일을 넘어 몽골과 북한, 신북방과 신남방 국가가 함께 환황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도는 29일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양승조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했다.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회사에서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절실했다. 우리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경제와 보건, 환경과 문화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로부터 출발, 환황해 각국의 상생과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시작하자”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중앙일보
일자	2020.10.30
제목	문정인 "中 겨는 美동맹 참여 땐, 황해가 전쟁바다 될 수 있다"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267

문정인 "中 겨는 美동맹 참여 땐, 황해가 전쟁바다 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9일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를 향해 동평 미사일을 겨누고, 서해 항로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도 자주 침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가 온다면 그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황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답보 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인데,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영변 모든 핵실험

시설과 심지어 연구소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카드를 다 보였지만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다 포기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그대로인데 지금 미중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환황해 평화는 정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韓 위기 고조…한중일 군비 경쟁도 평화 어렵게 해

최근 한국이 발표한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확보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군비 경쟁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문 특보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동북아 군비 전쟁이 바로 촉발된다”며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 평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한도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중·일 지방정부·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도 한국의 미국 반(反)중 전선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군사동맹에 참여하라고 하면 우리에게 존재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해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우릴 보호해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정인 "中 겨는 美동맹 참여 땐, 황해가 전쟁바다 될 수 있다"

출처	세계일보
일자	2020.10.30
제목	“환황해 평화·번영 협력국가 한중일에서 북한 몽골 신북방 신남방으로 넓히자”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29524428?OutUrl=naver

“환황해 평화·번영 협력국가 한중일에서 북한 몽골 신북방 신남방으로 넓히자”

양승조 충남지사, 29일 ‘제6회 환황해 포럼’서 개회사 통해 제안
 “코로나19로 세계인의 삶 모두 연결돼 있다는 사실 확인
 정치와 외교에 앞서 경제 보건 환경 문화 등에서 먼저 상생협력하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충남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환황해 협력 국가 확대를 제안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를 한·중·일을 넘어 북한·몽골·신북방·신남방 국가로 규모를 더욱 넓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가 29일 충남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개최한 ‘제6회 환황해포럼’ 개회사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양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미타코지·주한 일본대사·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 지사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며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국가들의 평화와 협력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세계인의 삶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의 20%가 몰려 있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환황해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왼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청와대와 정부의 환황해권 협력추진상황 등에 대해 말했다.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역사문제, 남북문제, 영토분쟁 등 지난 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은 질서를 벗어나지도 못했다”며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정치와 외교를 말하기 전에 경제와 보건, 환경과 문화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로부터 출발, 환황해 각국의 상생과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시작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생각이다.

예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한국경제
일자	2020.10.30
제목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충남도, 제 6회 환황해포럼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95037h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충남도, 제 6회 환황해포럼



양승조 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충남도, 제 6회 환황해포럼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한·중·일을 넘어 몽골과 북한, 신북방과 신남방 국가로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충남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열린 ‘제 6회 환황해포럼’ 개회사를 통해서다.

양 지사는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며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의 20%가 몰려 있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환황해는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충청남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환황해 각국의 상생과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환황해포럼을 중심으로 각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중심도시로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환황해의 중심으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환황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한 포럼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출처	이데일리
일자	2020.10.30
제목	문정인 “美반중동맹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 될 것…황해는 전쟁바다”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11606625937840&mediaCodeNo=257&OutLnkChk=Y

문정인 “美반중동맹시 한국 신냉전 최전선 될 것…황해는 전쟁바다”

문 특보 환황해포럼서 반중 전선에 부정 입장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하면 중국이 우리 적대”
남중국해서 미중 충돌시 환황해 평화 어려워져
미국 전향적으로 나서야…북한도 동참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9일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할 경우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를 향해 동평 미사일을 겨누고 서해 항로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도 자주 침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가 온다면 그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황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

현재 답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인데,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영변 모든 핵실험 시설과 심지어 연구소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카드를 다 보였지만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다 포기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그대로인데 지금 미중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환황해 평화는 정말 어려워진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한국이 발표한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특보는 “우리가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동북아 군비 전쟁이 바로 촉발된다”며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 평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한도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며 한·중·일 지방정부·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도 한국의 미국 반(反)중 전선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군사동맹에 참여하라고 하면 우리에게겐 존재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해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우릴 보호해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출처	서울경제
일자	2020.10.30
제목	문정인 "美동맹 참여하면 중국이 적대... 황해는 전쟁의 바다"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JKRAOH

문정인 "美동맹 참여하면 중국이 적대... 황해는 전쟁의 바다"

"핵은 북한 생존에 유일한 카드, 미국이 안받아"

"한국, 핵잠수함 등 확보하면 군비 경쟁 촉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중국도 우리를 향해 동평 미사일을 겨누고 서해 항로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방 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도 자주 침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가 온다면 그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항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인데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영변 모든 핵실험 시설과 심지어 연구소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카드를 다 보였지만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다 포기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이 발표한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특보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동북아 군비 전쟁이 바로 촉발된다”며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 평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한도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은 압제적 체제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게 옳은 것인가, 신냉전 구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우리에게 주는 지도 못 느끼겠다”며 미중갈등 속 한국이 미국 편에 서야 할 당위성을 부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JKRAOH>

출처	브레이크뉴스
일자	2020.10.30
제목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양승조 지사, 29일 '제6회 환황해 포럼'서 제안
링크	http://www.breaknews.com/764017

양승조 충남도지사, 환황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양승조 지사, 29일 '제6회 환황해 포럼'서 제안



▲ 양승조 충남지사 가 개회사를 하고있다. © 김정환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한·중·일을 넘어 몽골과 북한, 신북방과 신남방 국가로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양 지사는 29일 예산 스포러스리움에서 개최한 ‘제6회 환황해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서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양 지사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며,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세계인의 삶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우리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지금, 환황해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20%가 몰려 있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환황해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황해 지역은 “역사문제, 남북문제, 영토분쟁 등 지난 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했고, 낡은 질서를 벗어나지도 못했다”며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고 양 지사는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의 꿈의 크기를 한 단계 더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며 환황해 평화·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히자고 강조하고, 환황해 평화·번영 확장에는 충남이 앞장서겠다고 “환황해포럼을 중심으로, 각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중심도시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hungnam Provincial Governor Yang Seung-jo suggested, "Let's expand the scale of peace and prosperity by going beyond Korea, China, and Japan to Mongolia, North Korea, New Northern and New Southern countries."

On the 29th, Governor Yang made this statement through the opening speech of the '6th Pan-Yellow Sea Forum' held at Yesan Spicesom on the 29th, and then at a forum held on the theme of '2020 New Leap Pan-Yellow Sea', the two governors said, He pointed out that they are changing their lives as a whole and demanding new changes in all fields."

He said, "Especially if there is a lesson we desperately learned in this process, the l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all connected."

Governor Yang said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came more urgent for this reason. "As we humanity overcome numerous crises together with the spirit of win-win, we created the present civilization and created an international order, I have to make it."

And he said that the departure "must start right now, in the Pan-Yellow Sea."

It is believed that 20% of the world's population, accounting for 20% of the world's trade volume, and sharing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with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will be the foundation of prosperity that is hard to find anywhere else. It is because of the explanation of both governors.

However, the Governor Yang said, “We have not overcome the legacy of imperialism and the Cold War in the last century, such as historical issues, inter-Korean issues,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have not escaped the old order,” said Governor Yang. .

Governor Yang said, “For greater peace and prosperity, we must expand and expand the size of our dreams one step further.” Emphasizing that the scal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Pan-Yellow Sea will be further expanded. “We will fulfill our role and role as a central city of the Pan-Yellow Sea based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each country, centered on the Pan-Yellow Sea Forum.”

Reporter Jeong-Hwan KIM

IV. 행사 사진

개회식&기조연설



평화세션_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변영1_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변영2_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공생1_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공생2_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VIP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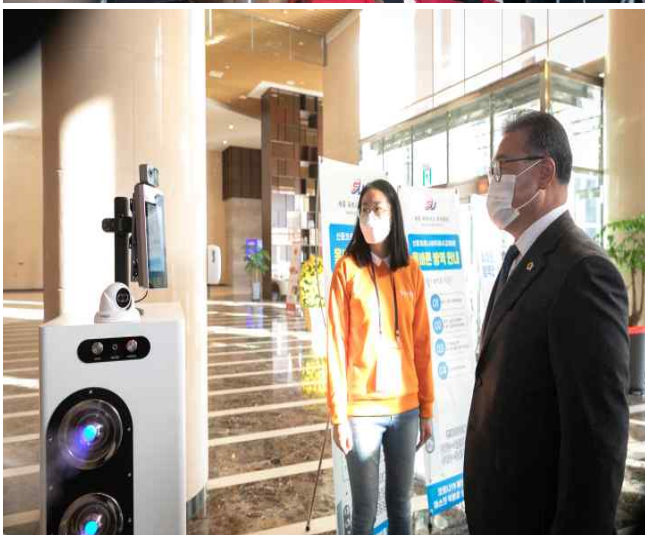
제6회 환황해포럼



기타_VIP환담,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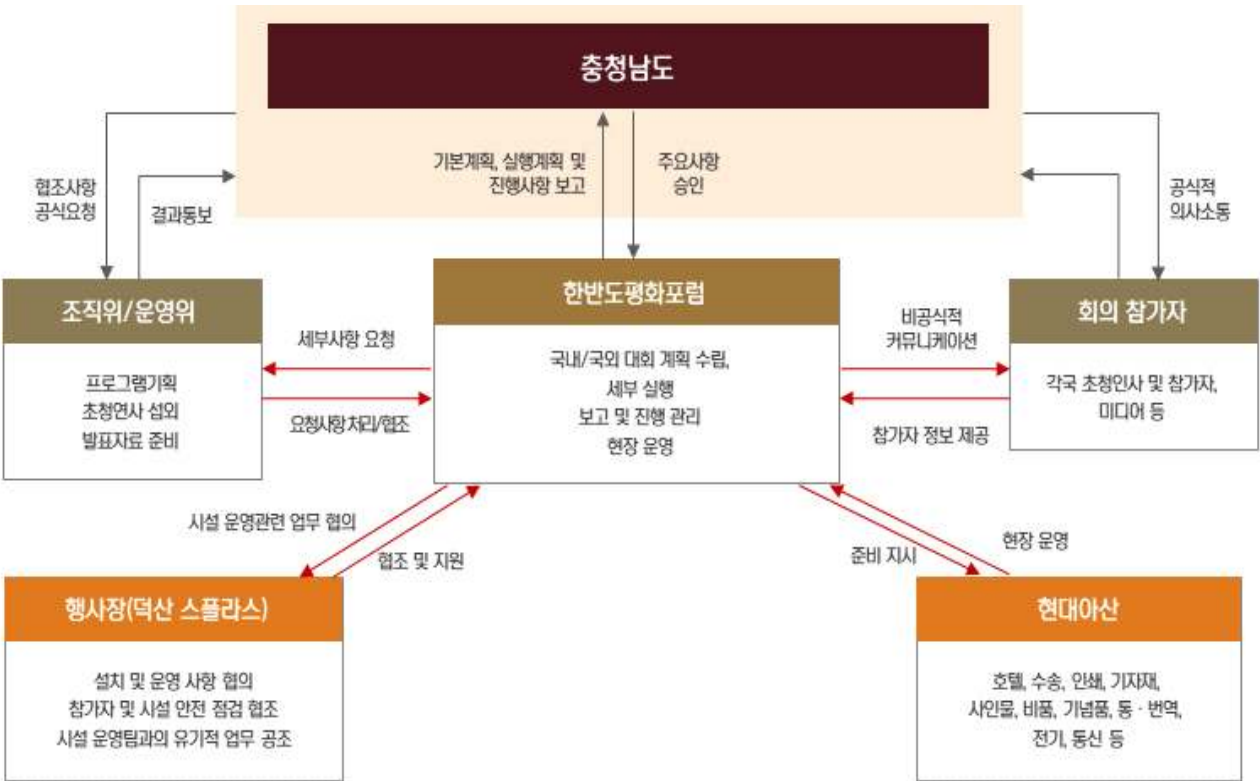
제6회 환황해포럼



V. 기타

과업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2.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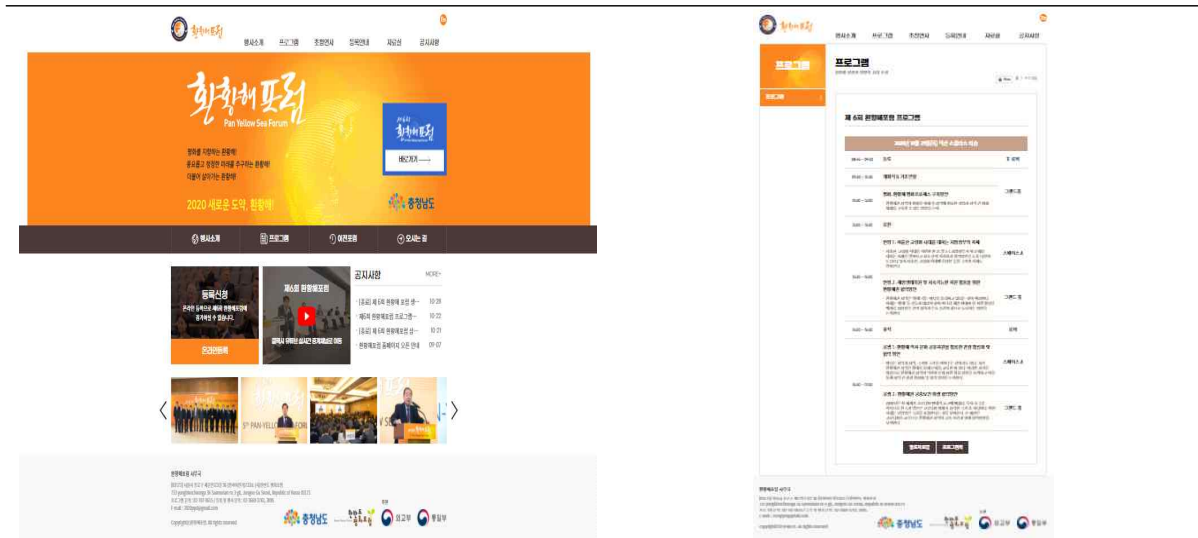
구분		7~8월	9월	10월	11~12월
1. 기획 총괄	계획수립				
	□ 프로그램 협의 및 확정	●			
	□ 포럼 로고 확정	●			
	□ 기본계획 수립	●			
	□ 세부실행계획 수립/조정		●		
	□ 운영매뉴얼/체크리스트 작성			●	
	재정				
	□ 예산편성/확정	●			
	□ 행사경비 집행			●	●

	☐ 정산/사후 원가 계산 의뢰				●
	계약				
	☐ 대행사 선정/계약체결	●			
	☐ 대회장 및 숙소 결정 계약	●			
	☐ 협력업체 섭외/선정		●		
	관련기관 협조 요청				
	☐ 후원기관 섭외/업무 협의		●		
	☐ 현장사무국 총괄운영			●	
	☐ 결과보고서 발간				●
2. 초청 등록	연사초청 업무				
	☐ 초청 연사 선정/지원 기준 확정	●			
	☐ 대체 연사 섭외/확정		●		
	☐ 연사 초청장 발송		●		
	☐ 연사자료 요청·취합		●	●	
	등록 업무				
	☐ 참가기준 수립/확정	●			
	☐ 참가신청서 제작		●		
	☐ 참가자 접수/안내			●	
	초청 업무				
	☐ 초청 범위/대상 선정/ 지원 기준 확정		●		
	☐ 초청장 발송 및 접수			●	
	☐ 초청자 확정/ 추가 초청자 섭외			●	
3. 영접 수송	영접				
	☐ 이동 계획수립			●	
	☐ 영접 인원 교육			●	
	차량 섭외/신청				
	☐ 의전 차량 협력사 선정		●		
	행사장 이동				
	☐ 교통편 안내			●	
4. 포럼 운영	운영계획				
	☐ 운영 계획 수립/확정		●		

	☐ 운영 인원 선발/교육			●	
	개회식/오찬				
	☐ 무대/음향 조성 계획수립/확정			●	
	☐ 개회식/오찬 시나리오 작성			●	
	☐ 주요 내·외빈 참석/축사/건배사 요청			●	
	세션				
	☐ 주제 발표, 세션별 환경조성			●	
	☐ 기타 프로그램 환경조성			●	
5. 홍보	포럼 홍보				
	☐ 홍보 계획수립		●		
	☐ 보도자료 배포			●	
	☐ 주요언론 취재 요청/ 현장 대응			●	
	☐ 온라인 홍보 진행			●	
	제작물				
	☐ 웹 포스터 제작		●		
	☐ 기념품 선정 및 제작		●		
	☐ 초청장 제작 및 배포		●	●	
	☐ 발표자료집 취합/인쇄			●	
	☐ 환경장식물 제작/설치			●	
6. 숙박 식음	숙박				
	☐ 소요객실 추정		●		
	☐ 주요인사 예우수준 결정		●		
	☐ 객실요금 협의 및 확정		●		
	☐ 일정 사용 객실수 파악(조정)			●	
	☐ 숙박 명단 작성 및 통보			●	
	식음				
	☐ 일자별 식음계획 수립			●	
	☐ 메뉴협의 및 개런티 확정		●		
	☐ 특이 식단자 취합/협의			●	

온라인 홍보

1. 홈페이지 제작



2. 홍보 동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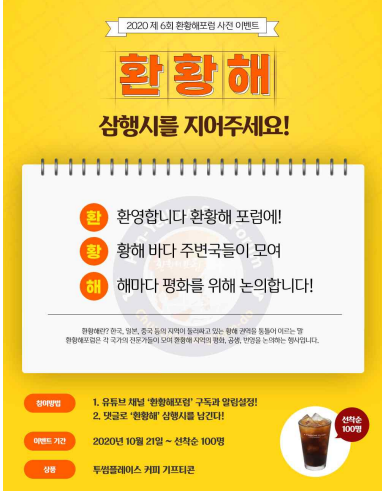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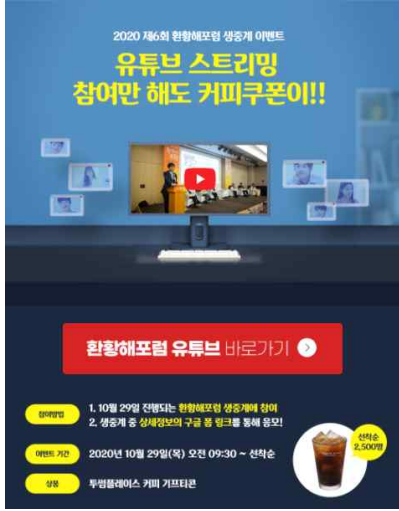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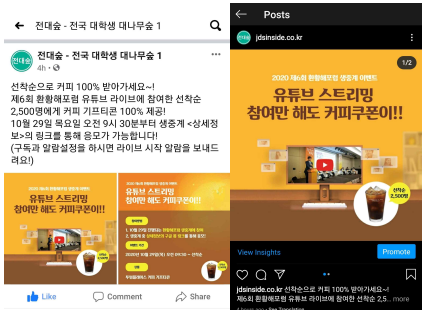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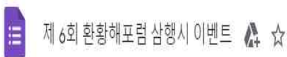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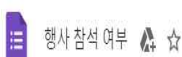
3. 유튜브 생중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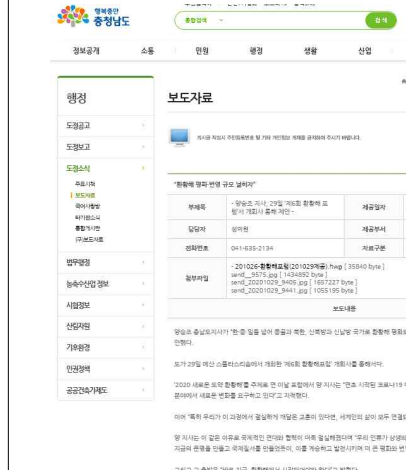
4. 웹자보 제작

시안	실행

5. 이벤트 진행

삼행시 이벤트	유튜브 생중계 이벤트
 2020 제 6회 환황해포럼 사전 이벤트 환 황 해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환 환영합니다 환황해 포럼에! 황 황해 바다 주변국들이 모여 해 해마다 평화를 위해 논의합니다! 환황해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리적 인접성과 있는 황해 권역의 통틀어 지칭하는 말 환황해포럼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황해 지역의 평화,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참여방법 1. 유튜브 채널 '환황해포럼' 구독과 알림설정! 2. 댓글로 '환황해' 삼행시를 남깁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10월 21일 ~ 선착순 100명 상품 투윙블래츠 커피 기프티콘 선착순 100명 	 2020 제6회 환황해포럼 생중계 이벤트 유튜브 스트리밍 참여만 해도 커피쿠폰이!! 환황해포럼 유튜브 바로가기 참여방법 1. 10월 29일 진행되는 환황해포럼 생중계에 참여 2. 생중계 중 상세정보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응모! 이벤트 기간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09:30 ~ 선착순 상품 투윙블래츠 커피 기프티콘 선착순 2,500명 
삼행시 이벤트 결과 (쿠폰 선착순 100명 지급 / 456명 참여)	유튜브 생중계 이벤트 결과 (쿠폰 선착순 2500명 지급 / 742명 참여)
 제 6회 환황해포럼 삼행시 이벤트 ☆ 응답 456개	 행사 참석 여부 ☆ 응답 742개

6. 보도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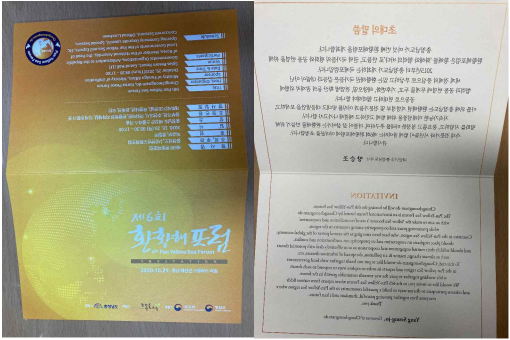
(2020년 10월 21일 보도자료)	(2020년 10월 29일 보도자료)
한화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한화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The screenshot shows the Hwahaeng News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nd a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press release titled "한화해 평화·번영·공생 '길' 찾는다" (Finding the 'Road' of Hwahaeng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The release is dated 2020.10.21 and is categorized under '지역' (Local). The text describes the 'Hwahaeng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Road' project, which aim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create a sustainable community. The project is led by the Hwahaeng District Office and involves various local organizations and residents. The release also mentions the 'Hwahaeng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Road' project as a key initiative for the district's development.	 The screenshot shows the Hwahaeng News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nd a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press release titled "“한화해 평화·번영 규모 넓히자”" (Let's Expand the Scale of Hwahaeng Peace and Prosperity). The release is dated 2020.10.29 and is categorized under '지역' (Local). The text describes the 'Hwahaeng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Road' project, which aim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create a sustainable community. The project is led by the Hwahaeng District Office and involves various local organizations and residents. The release also mentions the 'Hwahaeng Peace, Prosperity, and Coexistence Road' project as a key initiative for the district's development.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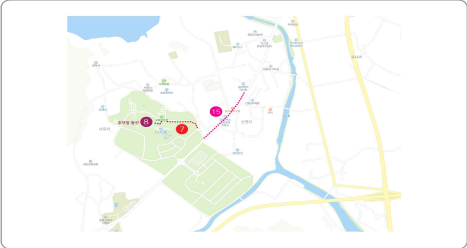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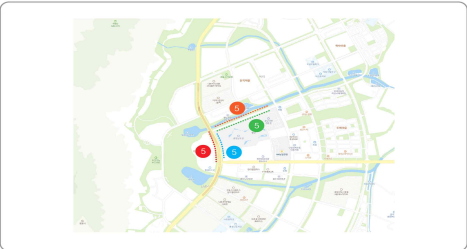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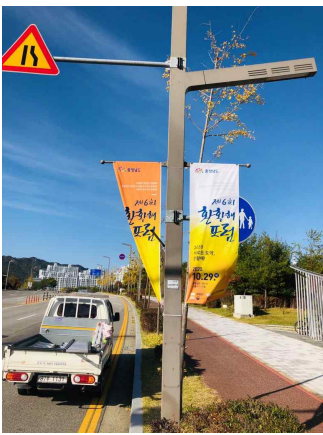
1. 옥외 광고

옥외 광고판	홍보 영상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활용, 광고 송출 (9월말~10월말, 한달간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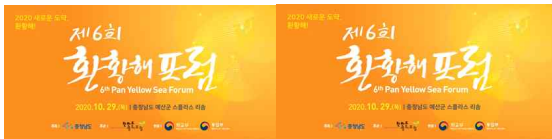
2. 초청장 발송

초청장 시안	실행
	

3. 가로기 배너 설치

행사장 주변 - 30조 가로등배너 설치위치 및 수량 익산 덕숭리조트 주변 		
실행 		
충남도청 주변 - 20조 가로등배너 설치위치 및 수량 충남도청 주변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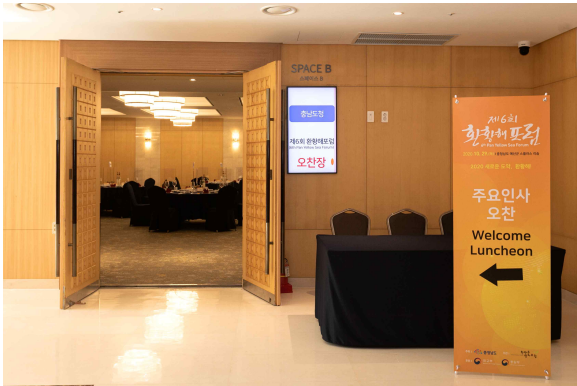
행사장 제작물

시안	실행
	
	
	

시안	실행

제6회 환황해포럼

시안	실행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SPLAS 내로보부상호호도 5색천·불 잔치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Welcome Luncheon	 2020 새로운 도약, 함께해요!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30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Welcome Lu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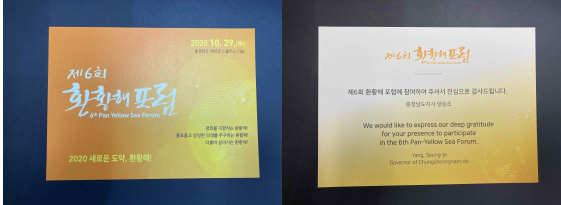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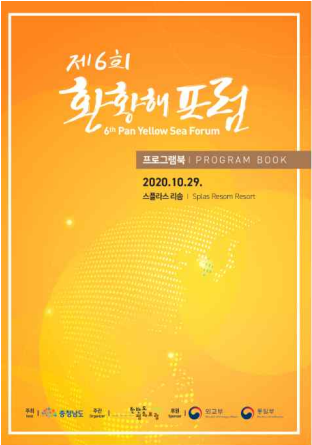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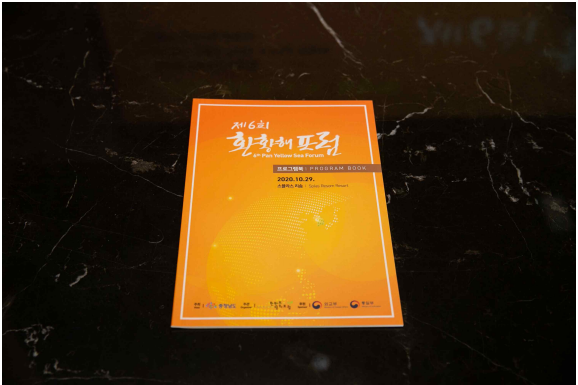
시안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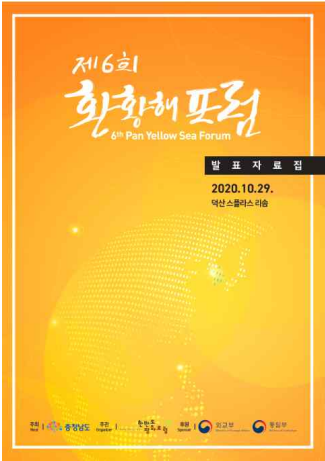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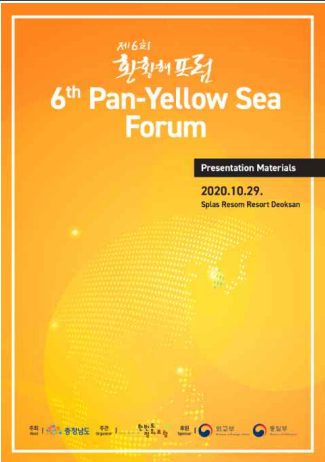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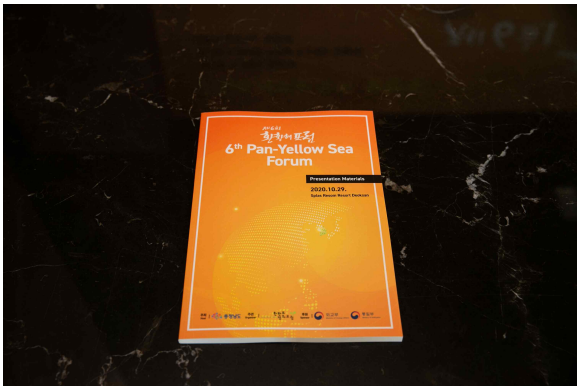
제6회 환황해포럼

시안	실행
	
	
	

시안	실행
	
	
	

제6회 환황해포럼

시안	실행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2020.10.29 (수)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2020.10.29 (수)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 포럼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your presence to participate in the 6th Pan-Yellow Sea Forum. Yang, Seung-joo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2020.10.29 (수) 충청남도 해안군 스포러스 리움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 포럼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your presence to participate in the 6th Pan-Yellow Sea Forum. Yang, Seung-joo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2020.10.29. 스폴러스 리움 Spolus Resort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2020.10.29. 스폴러스 리움

시안	실행
	
	
	

제6회 환황해포럼

시안	실행
	
	
	

참가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책
1	연사	가세로
2	연사	태안군수
3	연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연사	보령시장
5	연사	충남도의회 의장
6	연사(화상)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사회과학대학원 방문연구원
7	연사	홍성군수
8	연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
9	연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0	연사	단국대학교 병원장
11	연사	당진시장
12	연사	서천군수
13	연사(화상)	노자와 사치코
14	연사	도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15	연사	니나 모라르 보울
16	연사(화상)	주한 덴마크 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
17	연사	니시노 준야
18	연사	게이오대학교 정치학 교수
19	연사	주한일본대사
20	연사	도미타 코지
21	연사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22	연사	디나라 케멜로바
23	연사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군무관
24	연사	루스탐 타시마토브
25	연사	중국과기일보 서울지국장
26	연사	류샤오타오
27	연사	서산시장
28	연사	맹정호
29	연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0	연사	문무경
31	연사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32	연사	문정인
33	연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34	연사	서형수
35	연사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36	연사	신영전
37	연사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8	연사	신혜중
39	연사	주한중국대사
40	연사	싱하이밍
41	연사	아크바르전 투라예프
42	연사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참사관
43	연사	양승조
44	연사	충남도지사
45	연사(화상)	엄주현
46	연사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47	연사	오카사카 켄타로
48	연사(화상)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49	연사(화상)	왕슈안이
50	연사(화상)	푸단대 의생물학연구원 연구위원
51	연사(화상)	위샤오화
52	연사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53	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54	연사	윤용혁
55	연사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56	연사	전 통일부 장관
57	연사	이종석
58	연사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59	연사	지진호
60	연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61	연사	최보근
62	연사	전 공주대학교 총장
63	연사	최석원
64	연사(화상)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65	연사	투커구어
66	연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67	연사	허재영
68	연사	예산군수
69	연사	황선봉
70	사전	강경심

제6회 환황해포럼

42	사전	고두환	
43	사전	권성실	
44	사전	김광석	
45	사전	김기영	
46	사전	김나희	
47	사전	김영수	
48	사전	김옥선	
49	사전	김은숙	
50	사전	김진우	
51	사전	김하균	
52	사전	김효철	
53	사전	문대웅	
54	사전	방한일	
55	사전	서윤석	
56	사전	서헌성	
57	사전	성미현	
58	사전	송은정	
59	사전	안영민	
60	사전	안장현	
61	사전	예수	
62	사전	유창재	
63	사전	육안수	
64	사전	윤강현	
65	사전	이진자	
66	사전	이창희	
67	사전	전미경	
68	사전	전부안	
69	사전	정경문	
70	사전	정일영	
71	사전	최명옥	
72	사전	최문희	
73	사전	추진승	
74	사전	한석민	
75	사전	홍승우	
76	사전	황선은	
77	사전	황유진	
78	현장	송기상	